

2020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학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



민주평화국민연구회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 민주평화국민연구회 귀하

이 보고서를 「**평화·통일을 위한 대학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18.

- 연구기관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김진업 (성공회대학교 우이인문학연구소, 소장)
- 연구원 :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교수)
민영기 (성공회대학교 우이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 자문위원 :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요약문)

평화·통일을 위한 대학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우이인문학연구소 김진업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존 통일교육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바람직한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음

한국사회에서 선구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대학”임을 표방해 온 성공회대학교의 기존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한계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대학 통일교육 과정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함

2020년은 분단 75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으로서 남북한 적대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난 “위기 고조-극적인 협상-합의 도출-합의 실천의 파행-교착상태 지속-위기 고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한국측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전략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음

한국의 대학생·청년 세대는 전반적으로 한국전쟁 및 박정희-전두환 체제에서 시행된 맹목적 반공교육의 영향권 하에 있는 고령자 세대와 비슷하게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일변도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및 통일 지향적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동안 한국의 통일교육은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에서 안보교육, 반공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9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통일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식 명칭이 확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화해·협력,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공동체 구축의 전망에 따라 그 내용이 확대·심화되어 온 통일교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굴곡을 겪으면서 현재 청년세대의 부정적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짐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존 통일교육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바람직한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음

연구 내용은 크게 I장 서론, II장 통일교육의 정책적 지원, III장 대학교양과정 분석, IV장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과정 사례, V장 한국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모델, 그리고 마지막 IV장 결론으로 구성됨

〈II장 통일교육의 정책적 지원〉 항목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주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들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룸. 〈III장 대학교양과정 분석〉의 대상은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서울 및 지방의 국립 대학과 사립대학을 포함한 총 5개 대학의 교양과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룸. 〈IV장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과정 사례〉에서는 독일의 대학교육 체계, 동서독통일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서독의 정치교육이 한국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V장 한국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모델〉에서는 평화·통일 교양교과 수업 운영, 토론 및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개발, 평화·통일 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평화·통일 교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IV장 결론〉에서는 전장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먼저 평화·통일교과의 교양교육부터 바로잡아야 함. 교양교과 수업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와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선결과제로 삼음. 토론 및 체험활동을 중시하여 실사구시적 수업활동을 지향하며, 학생중심의 동아리운영과 자율적 액티비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평화·통일교육을 한단계 심화시키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전문 교·강사를 양성해야 함. 뉴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수업을 위해 컨퍼런스 개최 등의 이론적 뒷받침을 지속해야 함. 아울러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수렴하여 평화·통일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통일교육은 민주주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함을 강조할 것임. 즉 통일교육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기’로 이어져야 할 것임. 동시에 통일교육의 접근방법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자기교육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임. 통일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몽이라는 방법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음. 즉 국가교육은 국민들 스스로의 자기계몽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있음.

서독의 정치교육이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서는 근대사회의 이념과 냉전체제를 살펴보고 민주주의와 주변국의 평화공존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확인한 다음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에 주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음

통일교육은 민주주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함을 강조할 것임. 즉 통일교육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기’로 이어져야 할 것임. 동시에 통일교육의 접근방법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자기교육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임. 통일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몽이라는 방법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음.

한국의 경우 시민들의 자기계몽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과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대학의 통일교육 과정에 한반도의 현대사와 동북아 국제관계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함. 대학의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바탕 위에서, 단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서 ‘한반도 현대사’와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대학교양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전제”는 북한·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의 전환, 평화와 통일은 목표이자 동시에 과정이라는 사실 인식, 대학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정립에 되어야 함. 또한 평화통일교육은 평화·통일 교양교과 수업 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며, 토론 및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평화·통일 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평화·통일 교재 및 콘텐츠 개발 등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평화·통일교과의 교양교육을 바로잡아야 함. 교양교과 수업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와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선결과제로 삼음. 토론 및 체험활동을 중시하여 실사구시적 수업활동을 지향하며, 학생중심의 동아리운영과 자율적 액티비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평화·통일교육을 한단계 심화시키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전문 교·강사를 양성해야 함. 뉴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수업을 위해 컨퍼런스 개최 등의 이론적 뒷받침을 지속해야 함. 아울러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수렴하여 평화·통일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분단 역사 75년 동안 통일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해되어 옴.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 온 통일교육은 안보교육, 반공교육, 평화교육 등을 거쳐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음. 통일교육법이 제정된 1999년과 이어진 2000년의 남북정상회의 이후 통일교육은 특히 학교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어 옴.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시기에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소구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수요도 전과 달라지고 있음.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급격하게 부침하는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찌감치 통일에 관심을 두어야 할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 매몰되어 통일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있음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이어져 활발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도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적, 정치적, 종교적, 다문화적 관점 등이 있으며, 각 정권별로도 통일교육의 내용과 제도 등을 분석한다든가 북한의 학제, 독일에서의 경험사례 등이 연구되고 있음.

본 글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평화교육 중 대학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함. 이를 통해 대학교양 수준에 걸맞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통일교육은 민주주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함. 이렇게 될 경우 통일교육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기'로 이어져야 할 것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교육이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자기교육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임.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몽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음. 즉 국가교육은 국민들 스스로의 자기계몽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있음.

통일교육지원법(1999년) 제정과 남북정상회의(2000년)이후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통일교육에 관한 정책적 지원도 과거에 비해 체계화되고 있음.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의 취지는 대학내 통일교육의 전면적 확산이라기 보다는 모범적 통일교육을 주변지역이나 대학 등으로 확산시키고 우수한 교육모델을 개발·보급하자는 것에 두어져 있음. 평화와 통일은 과정이며, 진정한 통일은 남북 공동체 주민들의 내면적 통합이 수행되어야 함. 통일은 외부적 독립적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부에서 추동하는 것이며, 과정으로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일교육의 전제로 함.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함.

< 목 차 >

I .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자료	2
3. 연구의 내용	2
II . 통일교육의 정책적 지원	5
1. 통일교육의 개괄적 이해	5
2. 통일교육 기본계획	6
가. 수립 배경	6
나. 추진경과	6
다. 2019년 평화 통일교육 현황(통일부)	6
3.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	10
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개관	10
나.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 수행활동 분석	12
4.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2020년 기준)	29
가. 사업목적 및 선정	29

나. 사업 요약 및 현황	30
다. 사업 수행 내용과 현황	31

Ⅲ. 대학 교양과정 분석 37

1. 평화/통일/북한관련 교양과목 분석 필요성 37

2. 가천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38

가. 교양과정 개관	38
나. 교양교과 분석	38

3. 동국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44

가. 교양과정 개관	44
나. 교양교과 분석	44

4. 서강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50

가. 교양과정 개관	50
나. 교양교과 분석	50

5. 충북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55

가. 교양과정 개관	55
나. 교양교과 분석	55

6.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59

가. 교양과정 개관	59
나. 교양교과 분석	59

IV. 통일이전 독일의 평화통일 교육	60
1. 통일 이전 서독의 대학체제	60
가. 서독의 국가이념과 국가체제	60
나. 서독의 국가체제와 교육체제	61
다. 조합주의적 연방주의	62
2.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	66
가. 통일교육을 대신하는 정치교육	66
3. 서독의 정치교육이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69
가. 근대사회의 이념과 냉전체제	69
나. 민주주의와 주변국의 평화공존	69
다.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70
V.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모델	71
1. 대학교양 평화 통일교육을 위한 전제	71
가. 북한·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의 전환	71
나. 평화와 통일은 과정	71
다. 대학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72
2. 평화통일교육 모델 제안	72
가. 평화·통일 교양교과 수업 운영	72
나. 토론 및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개발	74

다. 평화·통일 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75
라. 평화·통일 교재 및 콘텐츠 개발 75

VI. 결론 77

< 참고 문헌 > 8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20년은 분단 75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으로서 남북한 적대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난 “위기 고조-극적인 협상-합의 도출-합의 실천의 파행-교착상태 지속-위기 고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한국측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전략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음
- 2017년 하반기에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상황이 2018-19년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로 가는 극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후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한 간 합의 실천 과정에서 각자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해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상회담이라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패배하고 상대적으로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현재 북미관계가 언제, 어떻게 교착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지 주목되는, 전환적 과도기 상태에 처해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생·청년 세대는 전반적으로 한국전쟁 및 박정희-전두환 체제에서 시행된 맹목적 반공교육의 영향권 하에 있는 고령자 세대와 비슷하게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일변도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및 통일 지향적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동안 한국의 통일교육은 정부와 학교, 시민사회에서 안보교육, 반공교육, 평화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1999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통일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식 명칭이 확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후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의 화해·협력,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공동체 구축의 전망에 따라 그 내용이 확대·심화되어 온 통일교육은 이 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굴곡을 겪으면서 현재 청년세대의 부정적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짐
-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존 통일

교육의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바람직한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 연구는 또한 한국사회에서 선구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대학”임을 표방해 온 성공회대학교의 기존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한계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대학 통일 교육 과정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과 자료

-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을 택함
- 연구 자료로는 통일교육지원과 관련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정책 자료, 각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일 교육 교과 과정, 그리고 외국사례로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민주시민정치교육 과정을 분석과 평가의 대상으로 활용함

3. 연구의 내용

- 연구 내용은 크게 I장 서론, II장 통일교육의 정책적 지원, III장 대학교양과정 분석, IV장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과정 사례, V장 한국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모델, 그리고 마지막 IV장 결론으로 구성됨
- <II장 통일교육의 정책적 지원> 항목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주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들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통일교육의 개괄적 이해
 - ▷ 통일교육의 기본계획(수립 배경과 추진경과, 2019년 평화 통일교육 현황)
 - ▷ 통일교육 선도대학 프로그램(통일교육 선도대학 개관,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원 사업 수행활동 분석)
 -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2020년 기준, 사업목적 및 선정, 사업 요약 및 현황, 사업 수행 내용과 현황)
- <III장 대학교양과정 분석>의 대상은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서울 및 지방의 국립 대학과 사립대학을 포함한 총 5개 대학의 교양과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평화/통일/북한관련 교양과목 분석 필요성
 - ▷ 가천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 ▷ 동국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 ▷ 서강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 ▷ 충북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 <IV장 독일의 민주시민교육과정 사례>에서는 1) 독일의 대학교육 체계 2) 동서
독통일 이전 서독의 정치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3) 서독의 정치교육
이 한국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통독 이전 서독에서는 “통일교육을 대신하는 정치교육”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
라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1)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분단체제의 성격 2)
서독의 정치교육 주체 3)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상호관계를 ‘보이텔스바흐’ 합
의 내용에 대한 검토, 평가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 통독 이전 서독에서는 별도의 통일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통일교육은 정치
교육의 일부로 시행되었음.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를 자기교육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대학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교육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임. 이 합의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함.
- ▷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 ▷ 논쟁성의 유지(수업시간에도 현실의 논쟁상황을 재현할 것)
 - ▷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현실상황과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토론하
고 대안을 모색하는 힘을 기를 것) 등임.
- 서독의 정치교육이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서는 1) 근대사회의 이
념과 냉전체제를 살펴보고 2) 민주주의와 주변국의 평화공존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확인한 다음 3)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통일교육은 민주주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함을 강조할 것임. 즉 통
일교육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
기’로 이어져야 할 것임. 동시에 통일교육의 접근방법으로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자기교육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임. 통일 이
전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몽이라는 방법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음. 즉 국가교육은 국민
들 스스로의 자기계몽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
에 있음.

- 한국의 경우 시민들의 자기계몽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과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대학의 통일교육 과정에 한반도의 현대사와 동북아 국제관계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함.
- 곧 대학의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바탕 위에서, 단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서 ‘한반도 현대사’와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V장 한국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모델>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 “대학교양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전제” 항목에서는 1) 북한·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 2) 평화와 통일은 목표이자 동시에 과정이라는 사실 인식 3) 대학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 ▷ “평화통일교육 모델 제안” 항목에서는 1) 평화·통일 교양교과 수업 운영 2) 토론 및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개발 3) 평화·통일 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4) 평화·통일 교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IV장 결론>에서는 전장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먼저 평화·통일교과의 교양교육부터 바로잡아야 함. 교양교과 수업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와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선결과제로 삼음. 토론 및 체험활동을 중시하여 실사구시적 수업활동을 지향하며, 학생중심의 동아리운영과 자율적 액티비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평화·통일교육을 한단계 심화시키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전문 교·강사를 양성해야 함. 뉴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수업을 위해 컨퍼런스 개최 등의 이론적 뒷받침을 지속해야 함. 아울러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수렴하여 평화·통일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Ⅱ. 통일교육의 정책적 지원

1. 통일교육의 개괄적 이해

- 분단 역사 75년 동안 통일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해되어 옴.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 온 통일교육은 안보교육, 반공교육, 평화교육 등을 거쳐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음. 통일교육법이 제정된 1999년과 이어진 2000년의 남북정상회의 이후 통일교육은 특히 학교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어 옴.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시기에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소구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수요도 전과 달라지고 있음.
-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급격하게 부침하는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찌감치 통일에 관심을 두어야 할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 매몰되어 통일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있음
- 통일의 필요성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이어져 활발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도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
-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적, 정치적, 종교적, 다문화적 관점 등이 있으며, 각 정권별로도 통일교육의 내용과 제도 등을 분석한다든가 북한의 학제, 독일에서의 경험사례 등이 연구되고 있음.
- 본 글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평화교육 중 대학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함. 이를 통해 대학교양 수준에 걸맞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2. 통일교육 기본계획¹⁾

가. 수립 배경

-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99. 2월)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함.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계획을 수렴하여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함
- 통일교육지원법은 단계적이고 시스템화된 통일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원만한 수립을 위하여 관계된 기관과 단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나. 추진경과

- 통일부는 법에 따라 2000년도부터 연 단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배포하여 통일교육의 계획을 공유함. 통일교육은 2019년부터 기본계획의 체계와 구성을 개편함
-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세부계획은 연 단위 통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신설)에 반영함. 2019년은 3개년 기본계획과 2019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함
- 각 기관 교육 일정을 취합하는 구성을 개편하여, 범정부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7개 정책과제와 33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종합정리함

다. 2019년 평화 통일교육 현황(통일부)²⁾

1)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지속·확대

□ 평화교육 도입

- ▷ 남북 평화와 공존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 시민 역량 강화, 평화감수성 함양 강조함
- ▷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주요 방향과 실천

1) 이하의 내용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기본계획 (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pp.3~8의 내용을 발췌, 수록함;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기본계획 (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2019, 통일교육원
2) 이하의 내용은 통일교육원의 “2020 통일교육 시행계획.” pp.7~10의 내용을 발췌, 수록함; 통일교육원,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2020, 통일교육원.

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함

- ▷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체계와 구성을 개편하여 33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로드맵 마련함
- ▷ 제7회 통일교육주간('19.5.20.~5.26.)을 개최함. 전문가,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학문을 망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 프로그램 마련함
- ▷ 개막식, 국내·외 학생 대상 특강, 공모전, 캠프, 토크콘서트 등 참여 행사, 지역별 전시, 문화공연, 시민강좌, TV 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등 개최

□ 평화·통일교육 양적·질적 역량 제고

- ▷ 대내·외 교육 대상 확대 및 다변화
- ▷ 공직자, 교사, 통일단체, 각계 최고경영자, 지역 인사 및 DMZ 평화의 길 평화해설사 등 통일교육원 원내 교육 6개 과정 운영
- ▷ 체험 소통에 중점을 두어 교육 커리큘럼 개편
- ▷ 참여·소통형 수업 확대함. 예를들어 판문점·오두산전망대·강화도·하나원·DMZ 평화의 길 등 현장방문 다양화함. 이를 통해 교육생 수요·만족도를 반영한 커리큘럼 운영함
- ▷ 사이버통일교육 과정 운영, 약 35만 명 이수함
- ▷ 외국 초·중·고, 대학생 등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21개국 해외 신진학자 초청 아카데미 운영 등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확대함
- ▷ 해외 학자 초빙 및 북유럽 평화교육 기관 협력 등 전문성 강화

2) 분야별 평화·통일교육 지원

□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 초 중 고등학교의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 학교통일교육정책협의회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진로 체험형 과제와 연계된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33개교) 등 학교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강화
- ▷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지원(72개교),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크리에이터 부문 신설), 어린이 기자단(214명) 등 다양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 ▷ 통일교육 선도대학 확대 등 대학생 평화·통일교육 기반 확충
- ▷ 선도대학 추가 선정(3개교),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북한 강좌 지원 사업에 신

규 신청 대학 선정 등 대학 평화·통일교육 기회 확대

- ▷ 통일 모의국무회의, 권역별 토론회, 대학 동아리(6개) 활동 지원 등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추진

지역사회 통일역량 강화

- ▷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 강화 지원
- ▷ 연찬회, 자료 지원 등을 통해 통일교육위원 역량 개발, 지역 통일관 방문객 대상 해설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 ▷ 지역통일교육센터 대상 업무 매뉴얼 배포, 실무자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지원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도모
- ▷ 열린통일강좌 등 1,696회 개최, 221,521명 참여
- ▷ 지역 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및 전시 콘텐츠 보강 등으로 통일 체험의 장으로서 기능 강화

분야별·세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

- ▷ 공공부문 의무 통일교육 체계 구축 및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진 계획 수립·시행 등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및 안정적 추진
- ▷ 2030세대 대상 새로운 형식의 통일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

3)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평화 통일교육 콘텐츠 다변화

- ▷ 다양한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의 자료를 개발, 평화·통일교육 도서 대중화 시도 (예: 퀴즈북, 명사특강, 판문점 안내서, 뮤지컬과 통일, 평화인문 시리즈 등)
- ▷ 캠페인 광고 『평화와 소통의 두드림』 송출 및 대상별로 다양한 형식의 영상 자료 제작·방영(예: 웹기반 토크쇼, TV 특별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학교 교과용 클립영상 등)

사이버 평화·통일교육 확대

- ▷ 사이버교육 이수자 20만 명 돌파 및 교육생 다변화함. 기존 공무원·교원 중심

교육과정에서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재편성 및 콘텐츠 확대함. 일반인 교육생 수요를 반영하여 2030과정 및 시민과정을 신설함. 일반인 선호도 및 이해도를 반영하여 모바일 적합형 콘텐츠 제공

- ▷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사이버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소통 강화함. 유튜브 등 뉴미디어 통일교육 및 홍보 본격 추진.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 참여. 외부 기관 콘텐츠 제공으로 통일교육 플랫폼 확대 등

3.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

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개관

- 대학 스스로 주도적인 통일교육을 주관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통일교육원을 창구로 하여 2016년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 ‘옴니 버스 특강’, ‘통일·북한 강좌’ 사업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대학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기반을 이룩하고 저변을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음. 지난 5년간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통일교육사업은 대학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며, 대학 선정도 사업별, 권역별로 할당함으로써 대학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명료히 추구하였음
- 대학이 통일교육을 행하는 방식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³⁾
 - ▷ 학과중심형 : 북한학, 통일학 등의 학과를 개설하여 통일·북한 전공교육을 실시하는 방식
 - ▷ 교양선택형 :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통일·북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
 - ▷ 연구/선발형 : 정부 또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통일·북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
 - ▷ 사회교육형 : 대학이 자발적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
-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대상은 4년제 국공립·사립대학교임. 선정기준 중 통일교육 선도대학 여건은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통일관련 학생지원, 통일교육 실행실적 등인데 전체 배점 100점 중 25점을 차지함. 조건을 보면 사실상 지방소재 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은 지원하기 어려우며, 신규대학의 진입도 사실상 배제되기 쉬움
-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의 취지는 대학내 통일교육의 전면적 확산이 아닌 모범적 통일교육을 주변지역이나 대학 등으로 확산시키고 우수한 교육모델을 개발·보급 하자는 것에 있음

3) 한승대. 2018. “정부 지원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6): 1201 - 16.

1)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의 목적

-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 육성하여 대학통일교육의 우수모델 개발, 보급, 확산함
- 대학 내 통일교육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 대학 내 통일논의 활성화 및 통일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

2) 지원 대상 및 규모

- 사업기간 : 4년(2+2년), 2년 지원 후 중간평가 실시
-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포함)
- 지원규모 : 총 4~5개 대학 지정(대학별 연간 3~5억원 수준)

3) 신청 및 제출 서류

- 예비접수 및 본 접수 방식으로 진행 : 예비접수(사업신청서)를 신청한 대학에 한해 본 접수(사업계획서) 실시
- 통일교육선도대학 신청서 제출 방법 및 기한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예비접수	사업신청서 1부	전자공문 (수신처 :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본 접수	사업계획서 12부 (원본 1부 포함) USB 1개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전자공문+우편제출 (수신처 :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 학교통일교육과)

4) 선정 방법 및 기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
- 통일교육선도대학 선정기준 및 배점

평가 구분	평가 내용
① 통일교육 선도대학 여건(25점)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통일 관련 학생 지원 및 통일교육 실행 실적
② 통일교육 선도대학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합리성

운영계획(35점)	예산집행 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사업추진위원회(전담조직) 설치·운영·전담인력 확보 여부 등)
③ 통일교육 선도대학 발전계획(40점)	선도대학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선도대학 우수모델 개발·확산계획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절성

5) 통일교육선도대학 현황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은 2016년 처음 시행되었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대학으로 지속되었음. 2019년 3개 대학이 추가되었고, 2020년 송실대만 재진입하고 5개 대학은 지원대학에서 제외됨, 2020년 새로운 5개 대학이 진입함으로써 9개 대학이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 유지됨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정 현황

2016년(6개)	서울대, 송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
2017년(6개)	서울대, 송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
2018년(6개)	서울대, 송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
2019년(9개)	서울대, 송실대, 아주대, 충남대, 경남대, 광주교대, 강원대(신규), 인제대(신규), 한동대(신규)
2020년(9개)	송실대(재진입), 강원대, 인제대, 한동대, 경기대(신규), 대전대(신규), 전북대(신규), 충북대(신규), 서울교대(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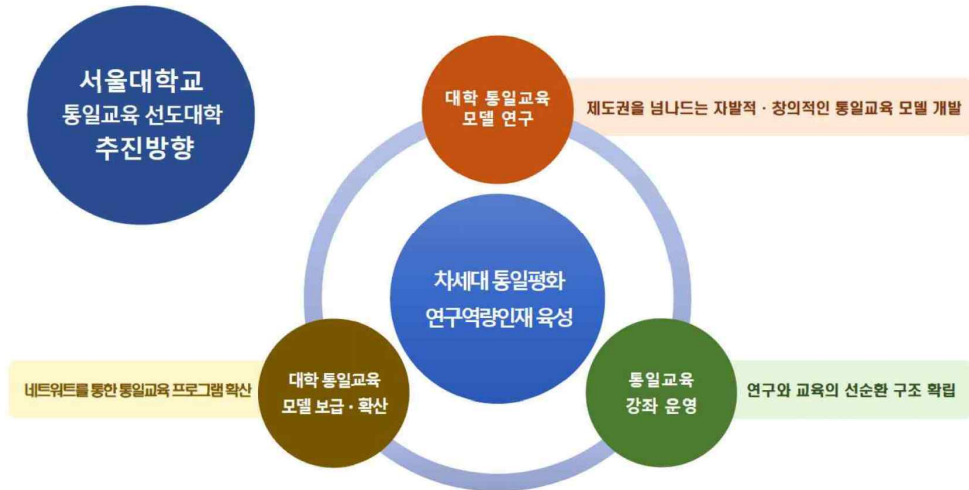
나.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원사업 수행활동 분석

지난 2016년부터 수행되어 왔던 통일교육선도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다소 중복되는 사업도 있음. 주목할 만하며, 참신한 사업을 뽑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서울국립대), 충남대학교(지방국립대), 송실대학교(서울사립대-재진입), 경남대학교(지방사립대) 그리고 신규진입한 강원대학교(지방국립대)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함

1) 서울대학교⁴⁾

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추진방향



□ 서울대학교의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추진됨.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통일평화 연구역량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 대학 통일교육 모델 연구 : 제도권을 넘나드는 자발적·창의적인 통일교육모델 개발
- ▷ 대학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 네트워크를 통한 통일교육프로그램 확산
- ▷ 통일교육강좌 운영 :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

나) 기본구상(성과목표)

□ 통일교육모델 연구개발

- ▷ 정규 교과과목뿐 아니라 학내 다양한 학과, 연구소, 센터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통일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21세기 탈중심적·탈권위적·다원화 사회에 걸맞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 ▷ 대학생 교양교육, 일반 시민교육을 위한 통일·평화 교재 개발 및 출판

4)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2020)”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소개함

□ 통일교육 강좌 운영

○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

- ▷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의치학, 보건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접목함으로써 통일평화교육 영역의 다양화
- ▷ 현장답사를 통한 학생 참여형 통일평화교육 수행
- ▷ 남북한 보건의료 R&D, 한반도 응급의료협력 등 고도의 전문 실천 영역과 통일교육을 결합

□ 대학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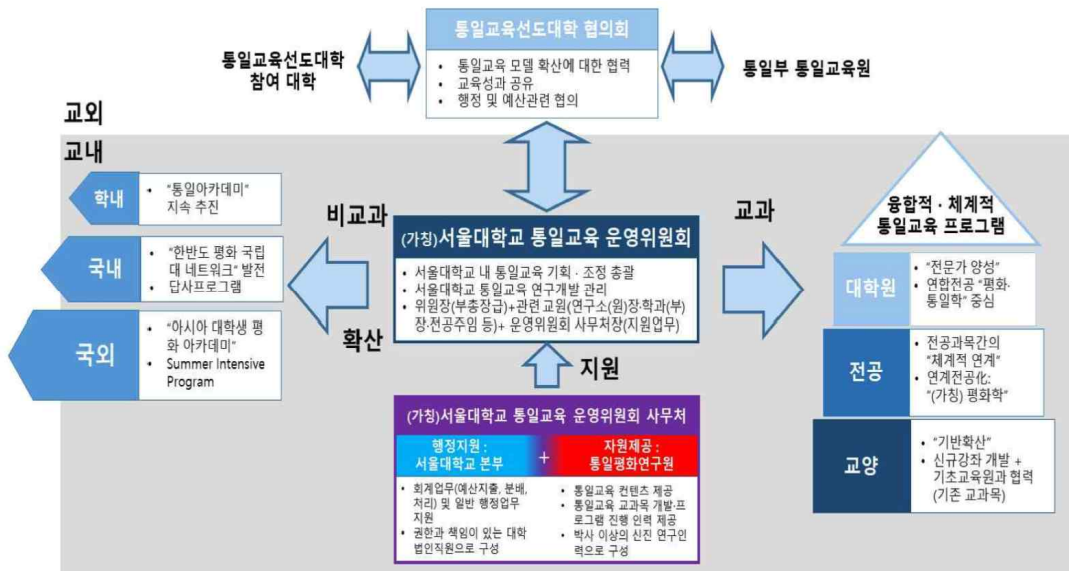
○ 유럽·아시아 우수대학과 연계하여 통일평화교육의 국제화 강화

- ▷ 아시아와 유럽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평화교육의 전지구적 지평 확대
- ▷ 한국-유럽 대학생 여름 평화캠프 (서울대-베를린자유대·독일 보훔대·프랑스 이날코 등)
- ▷ 아시아대학생 평화아카데미 (서울대-싱가포르 국립대·홍콩 중문대·태국 라롱콘대·인도뉴델리대·인도네시아 에어랑가대 등)

○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신한반도 시대에 걸맞은 개방적·진취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산

- ▷ 2019년 서울대의 발의로 발족한 ‘한반도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 그리고 DMZ를 연결하는 ‘신한반도구상’과 감응하는 대학간 통일교육 연계 모델 수립.
- ▷ SNU-KNU 동해평화학교 (서울대-강원대-강릉원주대-춘천교대)
- ▷ 통일평화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서울대-부산대-전북대)

□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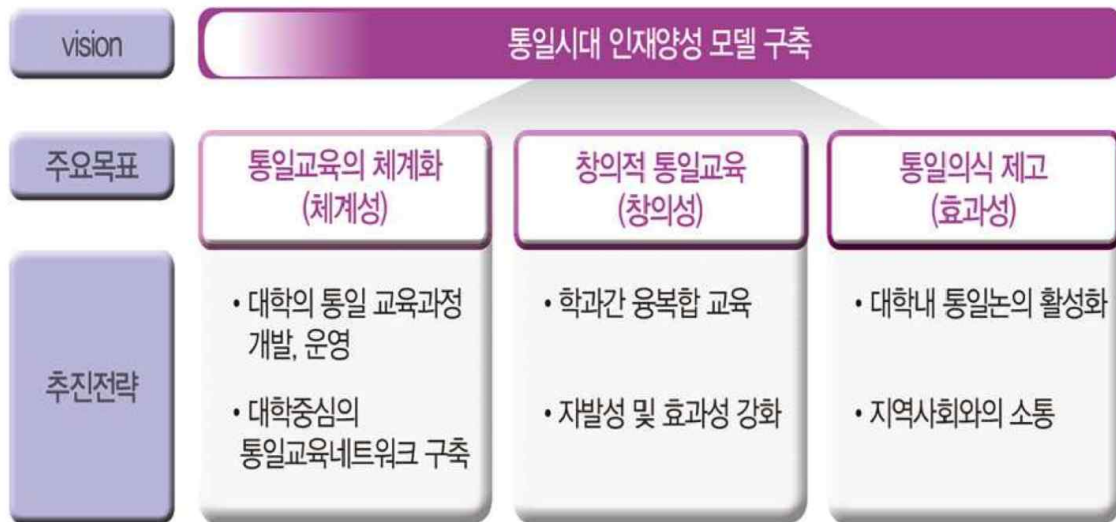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발전과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진행방향 모식도〉

다) 사업성과

- 총 1,646명이 2019년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 타대학 학생 (329명) 및 외국대학학생(55명)에게 개방하여 서울대 통일평화교육 모델의 국내외적 확산
- 총 5건의 통일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통일·평화관련 교재 개발 3건, 연구보고서 2건)
- 총 22개의 통일평화관련 강좌 운영(교과형 12개, 비교과형 10개).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통일·평화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한 투트랙(Two-Track) 방식의 강좌들이 다양한 전공에서 개설
- 통일교육 선도대학 프로그램의 다년차의 경험과 안정적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을 국내(8개 대학)·국외(16개 대학), 및 시민사회로 보급 및 확산
-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를 통한 국립대 연합 프로그램 (2건), 유럽 및 아시아 대학들과 연계한 Summer Intensive Program (2건), 한길사-한국냉전학회와 연계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양강좌 (1건)

2) 충남대학교⁵⁾

가) 기본 구상(성과 목표)



〈충남대학교 통일교육 추진전략〉

□ 통일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통일교육모델 구축과 확산

- ▷ 체계성, 창의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통일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모델구축
- ▷ 창의적 융·복합인재로서 STRONG한 통일리더양성
- ▷ 충남대학교 통일교육모델을 지역대학으로 확산

□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에서 추구하는 통일인재의 상

- ▷ “보편적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통일과정과 이후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
- ▷ “STRONG한 통일리더”는 충남대학교 통일교육 6대 핵심역량을 갖추는 교육과정참여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정립

□ 창의적 융·복합인재로서 STRONG한 통일리더양성을 위한 모델화

- ▷ 체계성, 창의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성화와 이를 견인할 통일전문 트랙의 통합 운영체계를 통해 통일 및 통일교육에 대한 교내 관심 증대

5) “충남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2020)”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소개함

- 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연계전공인 “통일리더십과 개발협력”으로 견인
- ▷ 이러한 과정을 통해 “STRONG한 통일리더 양성”이라는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달성

□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 운영원칙

- ▷ 사업추진 전략으로서 체계성, 창의성, 효과성은 “통일시대 인재양성 모델구축”을 위한 각사업영역의 운영원리로서 통합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 하고 운영

나) 사업 성과

□ 통일교육의 체계화

- ▷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학내 차원에서는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연계전공의 내실화를 제고함
- ▷ 지역차원에서는 대전지역대학 통일교육네트워크 참여대학간 협업을 통해 통일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둠
- ▷ 교육수요자로서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CNU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기반 확충과 교수법 및 교재개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창의적 통일교육

-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제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의 접근
- ▷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대
- ▷ 사업단에서는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세부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까지 담당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임

□ 통일교육의 효과성 제고

- ▷ 참여학생들의 통일인식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교육추진
- ▷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연계를 통해 교육의 효과 증진
- ▷ 해외연수, 체험 및 캠프 등 감성적 접근의 기회확대

3) 송실대학교⁶⁾

가) 기본구상(성과목표)



□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의 완성 및 확산

- ▷ 통일교육의 비전은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완성하는 것으로, 필수교육형 중심의 통일교육을 시작했던 송실대학교는 학과중심형, 연구중심형, 선택교육형 통일교육의 균형적 보완을 통해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으며 2018년부터 ‘성과확산’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 ▷ 2019년에는 송실대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의 타 대학 확산에 중점을 두었음

□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의 4개년 목표

- ▷ 2016년부터 추진하는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이 완성될 경우 필수교육형 교육은 물론 학과중심형, 연구중심형, 선택교양형 교육의 보완을 통해 전체 4개 분야 교육목표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
- ▷ 2020년 현재, 송실대학교는 4개 분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송실대학의 핵심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6) “송실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2020)”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소개함

나) 사업 성과

① 대학 교육 모델 연구

□ 글로벌 '소지역협력'을 통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 ▷ 다국간 지역 협력인 '소지역 협력'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소지역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을 연구·개발함
- ▷ 융합 전공 참여 학생 및 기타 통일의지가 높은 학생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국가에서 독자적 연구를 수행하며 통일 방안에 대한 창조적 연구 논문을 집필하게 함
- ▷ 선발 대상 : 숭실대학교 재학생 중 융합 전공 참여 학생 및 기타 통일 의지가 높은 학생

□ 학·연·산 협업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 ▷ '통일외교 및 개발협력' 융합전공 학생들을 비롯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한 통일연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일분야 혹은 개발협력 분야 인턴십 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에 기반한 연구 논문을 생산하고자 함
- ▷ 선발 대상 : 숭실대학교 재학생 중 융합 전공 참여 학생 및 기타 통일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학생

□ 국내 학술대회

- ▷ 제 23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교비대응사업)
- ▷ 체제전환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한에 대한 시사점(국고)
- ▷ 제 26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북한사회의 변화와 개혁개방 가능성'(교비대응사업)
- ▷ 제 27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대전환기 동북아시아의 현황과 전망'(교비대응사업)
- ▷ 제 28회 숭실평화통일포럼 '대북 인도지원 24년의 경험'

□ 국제학술대회

- ▷ 제21회 숭실평화포럼 '체제전환기 정의의 문제'(교비대응사업)

- ▷ 제22회 송실평화포럼 '체코의 체제전환과 기독교의 역할'(교비대응사업)
- ▷ 제25회 송실평화포럼 '일본의 한반도 정책'(교비대응사업)
- ▷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체제 전환 및 대외교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국고)
- ▷ 한반도 평화 번영과 주변국의 전략(국고)

- 외부 및 해외 연구기관과 협업 :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의 해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국내·외 관련 단위 기관들과 협업·협약을 체결, 북한 특수자료실 개편, 교책지정 통일연구 지원

② 대학 통일교육 모델 보급·확산

- 비 통일교육선도대학과의 공동 학술대회

- ▷ 사업 목적 : 송실대학교의 통일교육선도대학 경험과 성과를 비 통일교육선도대학에 보급하여 통일 분야의 교육 아젠다 선도하고 송실대학교의 '종합형 SSU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델 중 '필수교육형' 통일교육 모델의 핵심 프로그램을 '선택교육형' 모델로 확산
- ▷ 사업 주요 내용 : 융합적 통일 교육 및 통일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진행. 송실대학교의 통일 교육에 대한 Know-how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확산에 기여함
- ▷ 선발 대상 : 비 통일교육 선도대학의 개발협력 또는 통일관련 연구소

-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대상 접경지역 및 통합 사례지역 탐방프로그램

- ▷ 통일교육 선도대학 경험과 성과를 비 통일교육선도대학에 보급
- ▷ 러시아 지역 현지방문을 통해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들의 해외 연구 프로그램 기회 확대
- ▷ 러시아에서의 학술대회를 참석함으로써 동북아의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들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방안 모색

-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 대상 학·연·산 협업 현장체험을 통한 통일연구 논문지원

- ▷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들의 통일 분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한 통일연구 지원
- ▷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특히, 연구 분야)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확산
- ▷ 통일관련 연구 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으로, 송실대학교 통일 연구 및 사업의

중추인 송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인턴십 활동을 통해 해당 현장 경험 혹은 통일·남북문제 관련 연구논문생산 (단, 연구논문은 의무사항은 아님)

- ▷ 선발 학생의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한 송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전문 인력들이 지도하여 심도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에 기여하고자 함
- ▷ 지원 학생의 학교 인턴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진행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 이수할 시 만족도 증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을 홍보 및 확산함

□ 통일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공모

- ▷ 통일관련 교과목 신규 개발을 통해 전 계열 학생의 통일역량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확대, 통일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 ▷ 선택교육형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송실대학교의 필수교육형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전 계열의 학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③ 통일교육 강좌 운영

□ 송실평화통일스쿨

- ▷ 통일관련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본교 교육목표인 '통일지향적 세계시민교육'을 구현하고,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송실평화통일스쿨

- ▷ 통일세대 학생들의 통일시대 삶의 목표와 비전 수립 (온라인 이론수업 50%, 오프라인 2박3일 수업 '송실평화통일스쿨' 50%)
- ▷ 기존 3박4일로 진행하던 '송실통일리더십스쿨', 통일교육원의 자문위원 평가 및 학생의견 반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2018년부터 2박3일의 '송실평화통일스쿨'로 진행
- ▷ 2019년부터 송실평화통일스쿨의 핵심 프로그램을 '송실통일맨', '층간소음(북한문화토크콘서트)'으로 브랜드화하여 진행, 특히 '층간소음'은 타 대학 확산사업으로 적극 활용됨

□ 통일 역사탐방 프로그램

- ▷ 국내 분단 및 통일 관련 역사적인 지역 방문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 제공. 참여 학생들에게 통일 탐방프로그램의 목적, 일정, 의의 등을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통일의식 제고 및 확산을 기대
- ▷ 학생들에게 국내 분단 및 통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탐방하도록 함
-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에게는 탐방 비용 일부를 지원
- ▷ 참여 학생들에게 통일 탐방프로그램의 목적, 일정, 의의 등을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

□ 송실 통일광장 (교비대응사업)

- ▷ 송신토론광장에서 송신통일광장을 개최하여 사회문제 및 통일 관련 주제로 열린 공간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토론함으로써 의사소통역량 및 평화통일의식 제고
- ▷ 매 차수 최우수 토론자 1명, 우수 토론자 2명을 선정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4) 경남대학교⁷⁾

가) 기본 구상(성과 목표)

□ 사업 비전

- ▷ 비전: 신세대를 위한 창의적 통일교육의 중심대학!
- ▷ 의미: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통합적 상상력을 고양하는 통일교육
- ▷ 근거: 신세대 사조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통일교양 교육의 필요

□ 사업추진목표

- ▷ 대학생 통일인식의 전환 및 통일의식 제고
- ▷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통일교육 모델의 개발과 확산
- ▷ 영남권 지역대학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 추진전략

- ▷ 사이버 교양강좌 개발 운영/비교과 현장체험교육의 확대
- ▷ 교육환경 개선 및 성과 관리 강화
- ▷ 지역 내 통일교육 모델 개발 확산

□ 기대효과

- ▷ 신세대 대학생을 위한 창의적이고 열린 통일교육 모델 정착
- ▷ 사이버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강좌 도입을 통한 전교생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
- ▷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통일교육 교수법 개발 및 확산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공유

나) 사업 목표

- ▷ 통일교육모델 확산
- ▷ 영남권 소재 대학들과의 통일교육 모델 공유 및 연계
- ▷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이 수반된 현장실습형 심화교육 실시
- ▷ 찾아가는 통일교육 컨설팅을 통해 통일교육 노하우 전수
- ▷ 통일과 북한 관련 교양 강좌 수정 및 보완, 통일교양 교재 제공
- ▷ 지역사회 통일교육협력체제 구축
- ▷ 영남권 통일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타 대학의 통일교육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재정비
- ▷ 지역 대학의 통일의식 전환 및 통일 논의 활성화

7) “경남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2020)”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소개함

▷ 융합관련 교수법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다) 사업 성과

□ 통일교육 관련 교양 과정 및 비교과 과정 운영 활성화

▷ 사이버(온라인) 7강좌, 오프라인 강좌 4강좌 개설 운영

▷ 특성화 교과 개설, 교양필수 1과목, 교양선택 10과목 개설 운영

▷ 1학년 대상 <통일과 북한> 사이버 강좌 운영(교양필수 1과목)

▷ 교양선택 강좌 개설

▷ 1~4학년 대상 사이버 강좌 6과목, 오프라인 강좌 4과목 운영

▷ 통일교양 교육과정 입문단계 발판마련,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 및 정보 제공

▷ 융복합형 트렌드에 따른 주전공 외 북한 및 통일 관련 관심도 제고

▷ 수시시험, 과제, 토론, 출석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학점 부여

□ 비교과 과정의 통일교육 모델 적용

▷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이 결합된 현장실습형 심화교육 실시

▷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여타 사업과의 연속성과 발전성을 추구함으로써 심화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견학과 탐방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참여 프로그램별 마일리지 적립 부여

▷ 비교과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장학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함 - 총 4개 단위사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 실시 <통일한마 리더십 프로그램>, <통일문제 토론대회>, <통일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 <통일홍보대사 양성 프로그램>

▷ 단순 참여 외에도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동을 유도하였음

▷ 대표적인 비교과 과정 <통일한마리더십프로그램> 운영 이후 타 대학에 통일교육 시범프로그램으로 적용함

□ 통일교육 모델 확산·보급을 통한 지역 대학 간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통일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통일교육 학술대회, 영남권 대학 통일동아리 운영을 통해 대학생 및 통일교육 관계자들의 통일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본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던 통일교육 모델을 영남권 타 대학으로 확산하고자 맞춤형 통일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함

▷ 본교 통일교육 관련 (비)교과교육과정 설명 및 매뉴얼 보급을 위한 평가회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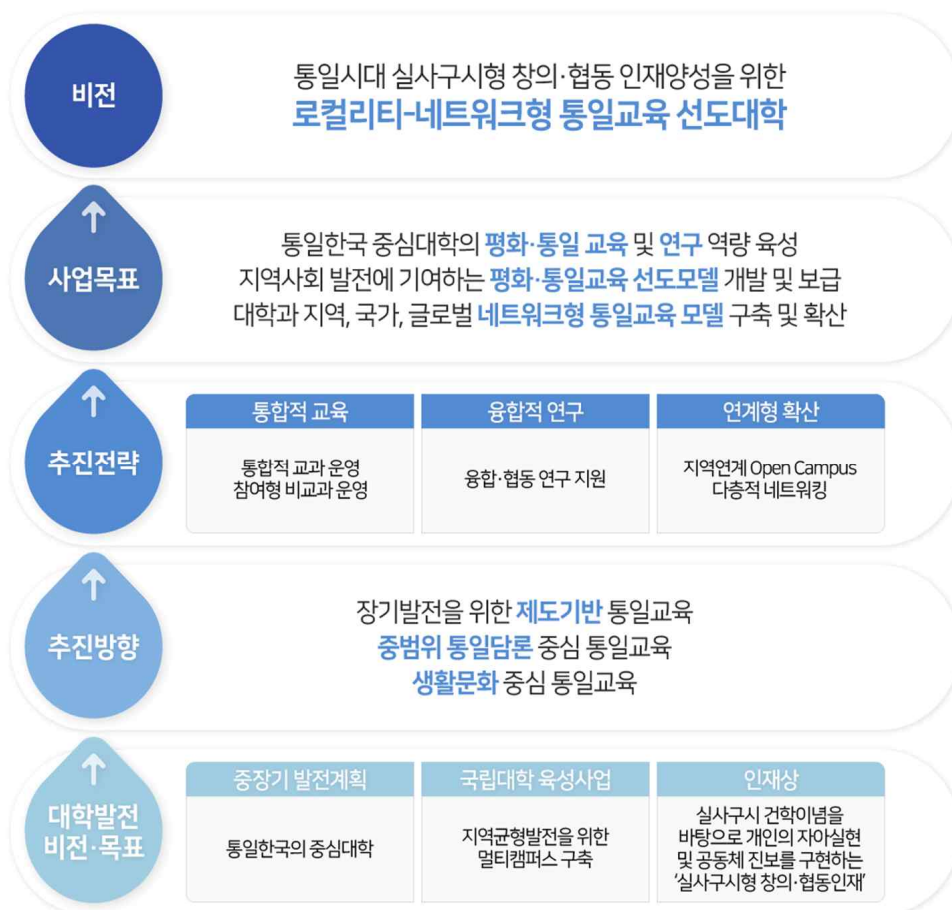
간담회 실시

- ▷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수 있는 기회제공
- ▷ 컨설팅과 통일동아리 참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현장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함.
2회 연속 참여한 2개교, 신규 2개교가 참여함으로써 영남권 주요대학에 본교 통일교육 모델을 확산하였음

5) 강원대학교8)

가) 기본 구상(성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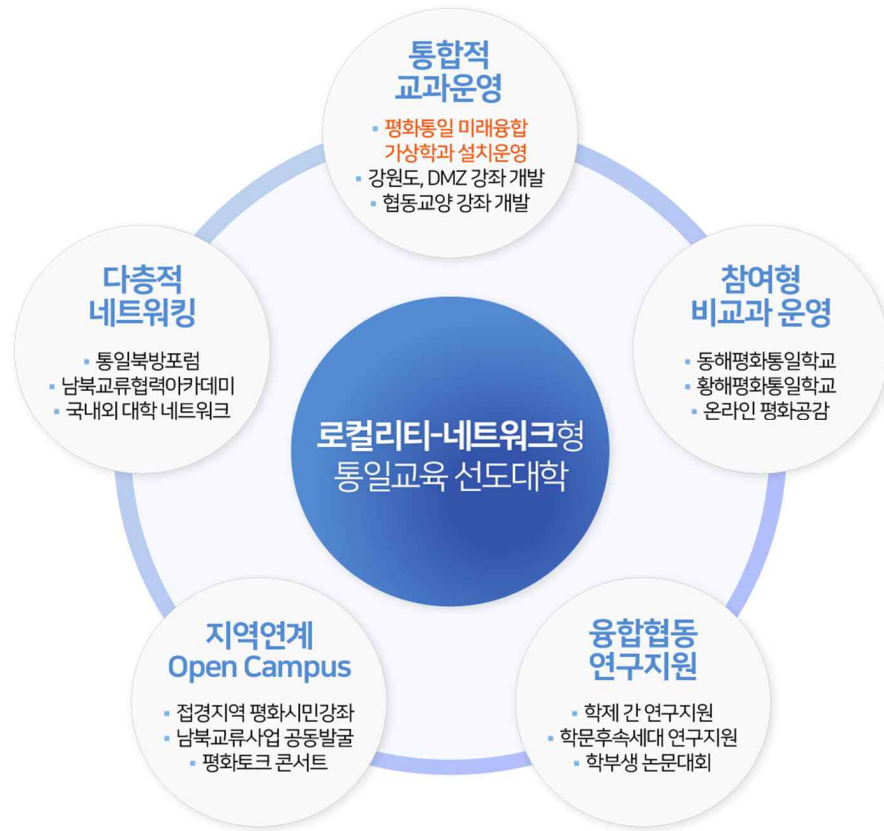
- 강원대학교는 로컬리티-네트워크형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 사업 모델을 제시함. 대학발전의 비전 및 목표와 부합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 사업의 비전 및 목표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합적 교육, 융합적 연구, 연계형 확산 전략은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기반의 통일교육 시행을 가능케 함.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로컬리티-네트워크형 통일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키고자 함.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비전 및 목표(로컬리티-네트워크형)〉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 사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함 추진전략은 크게 통합적 교과운영, 참여형 비교과 운영, 융합협동 연구지원, 지역연계 오픈캠퍼스, 다층적 네트워킹 5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되어 있음.

8)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연차보고서(2020)”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소개함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추진전략〉

나)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

구분	단위사업	과제 목표
연구 개발	①미래융합 가상학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 미래융합 가상학과 개설(1건)
		- 이슈 브리프 제작(4건)
		- 전문가 자문 및 평가 회의(10회)
		- 가상학과 운영의 질
	②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과 개발연구	- 강좌개발연구 과제 수(8건)
		- 강좌개발 과제 참여 교원 수(10명)
		- 교과개발연구 참여 단과대학 및 학부의 다양화
		- 개발 교과목의 실제 운영 여부
	③평화·통일, 북한 관련 교내 연구지원	- 통일, 평화 관련 공모과제를 통한 연구지원(10건)
		-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수(5건)
		- 연구 종료 1년 이내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여부
		- 연구과제 영역의 다양화
	④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 평화·통일, 북한 관련 포럼 진행(5회)
		- 평화·통일, 북한 관련 학술회의 진행(2회)
		- 학술회의 및 포럼 주제 및 개최장소의 다양성
		- 학술회의 및 포럼 주제 교과목 촬영 여부

구분	단위사업	과제 목표	
강좌 (모델) 운영	교과	①옴니버스 특강 및 강좌지원	- 지원 대상 강좌 운영 수(4건)
			- 특강 개최 횟수(35회)
			- 수강 학생 수(300명)
			- 만족도(3.5점 이상)
			- 특강 영역의 다양화
		- 특강 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교과운영지원	- 교양강좌 개설 수(8건)
			- 전공강좌 개설 수(5건)
	- 교과 만족도(3.5점 이상)		
	비교과	①동해평화학교	- 참여 학생 수(50명)
			- 참여 학교 수(3개교)
			- 만족도(3.5점 이상)
			-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②비교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	- 타 학교,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 비교과 아카데미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수(2건)
			- 참여 주민, 학생 수(300명)
			-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③온라인 평화공감 시리즈	-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주민, 학생 대상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			
④대학(원)생 논문 지원	- 온라인 평화공감 제작편수(5건)		
	- 프로그램 및 주제의 다양성		
⑤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학부생 논문 발표 수(5건)		
⑥해외교류네트워크 구축	-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신규)		
	-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		
	- 토론대회 참가 학생 수(40명)		
	- 토론대회 주제의 다양성		
		- 해외 학술회의 참가(2회)	
		- 해외 대학/기관 MOU(1건)	
		- 해외 학자/전문가 초청(3명)	
		- 해외 기관 및 전문가 교류 활용 결과의 다양성	

다) 사업 성과

- 강원대학교는 1차년도 사업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 4개 사업, 강좌운영 교과 2개 사업, 비교과 모델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데 주력하였음.
- 교내·외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북한/통일/평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당 이슈가 개인의 문제와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환기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음.

4.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2020년 기준)9)

가. 사업목적 및 선정

1) 사업의 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가) 사업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

나) 대학 당 지원규모

-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지원)
 - ▷ 특강 강사료: 210만원 이내(1회 70만원 상한×3회), 특강 책임 교수는 강의료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 운영비: 300만원 이내(△100만원 이내의 특강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 ▷ 현장학습 : 7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원×2인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원 이내)
 - ▷ 간접비 : (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9) 이하의 내용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의 공고문 등의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함; <https://www.uniedu.go.kr/>; 사업명은 알기 쉬운 한글 사용을 위해 외래어가 포함된 종전 명칭을 변경하여 2020년 2학기 모집 공고시부터 적용, △변경전: 유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변경후: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 ▷ 특강 및 현장학습 횟수는 대학의 수요에 맞게 정하되, 특강은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학습은 선택사항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3) 지원사업 내용

- 통일 강좌 사업(강좌 11회, 현장학습 등 지원)
 - ▷ 강좌 강사료: 770만원 이내(1회 70만원 상한×11회), 강좌 책임 교수는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의료 수령 불가
 - ▷ 운영비: 450만원 이내(△200만원 이내의 강좌 과정 관리비, △회의비, △강사 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 ▷ 현장학습 : 400만원 이내(△숙박비 3만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원×2인 이내, △보험료 실비,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원 이내)
 - ▷ 간접비 : (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 ▷ 각 단위 학교별 복수 강좌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강사는 중복 지정 불가), 현장학습은 선택사항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사업 공모 방식

- 각 학교 지원주체 : 쉰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를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지원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중복신청 가능, 단, 통일교육 선도 대학 등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불가
- 강사 자격조건
 - ▷ 통일 특강 :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 통일 강좌 :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나. 사업 요약 및 현황

-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이하 '강좌 지원사업')은 통일부 주최로 2016년 2학기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 2020년 2학기까지 꾸준히 진행 중임.
-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까지 총 61개 대학에서 190개 특강 또는 강좌를

통해 3만 5천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육 기회를 제공함. 최근 위탁사업자가 ‘한국정치학회’에서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교육사업단’으로 변경됨.

- 강좌 지원사업의 목적은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임
- 강사 자격은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에서 통일 문제에 식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로 바뀜
- 통일·북한 강좌 강사 자격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한 한기 강의가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가에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또는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상 통일·북한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 바뀜
- 사업 선정 대학교 결과를 확인하면 비슷한 학교와 교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2020년 1학기는 통일교육을 보다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신규 신청 대학과 교육대학(사범대학), 비수도권 지역 대학 등에 가점을 부여함 또한 2020년 2학기부터는 통일교육원 측에서 참여 학교 외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어떤 교수에 의해 어떤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다. 사업 수행 내용과 현황

1) 『옴니버스 특강』 진행 상황

연번	학 교	특 강	책임교수
2016년 2학기	경남대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 등 2개 특강 (현장학습 1회)	강문구
	경상대	『북한정치와 사회』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2회)	박균열
	국민대	『남북협력 및 북한 시장경제 분석』 등 2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여현철
	단국대	『통일정책 특징과 남북관계』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1회)	김진호
	대구대	『통일과 지역대학생의 꿈, 역할』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안현호
	동아대	『통일시대의 부산광역시』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2회)	황기식
	숙명여대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체제 미래』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2회)	홍규덕
	시립대	『글로벌 시각의 한반도 통일』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2회)	이병하
	우석대	『통일준비와 대학의 역할』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송정호
	인하대	『5천만이 행복한 평화 통일』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3회)	김용호

연번	학 교	특 강	책임교수
2017년 1학기	중앙대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등 2개 특강 (현장학습 2회)	조윤영
	한남대	『북한에서 한류와 사회변화』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2회)	최정진
	경북대	『탈북주민의 정착과 통일』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전현수
	교통대	『독일통일 교훈과 우리의 통일준비』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2회)	방장규
	국민대	『통일외교와 공공외교』 등 4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여현철
	대구대	『독일통일 리더십』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안현호
	동국대	『북한 도시주민의 거주와 경제생활』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2회)	고유환
	서울교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 등 4개 특강 (현장학습 2회)	함규진
	숙명여대	『왜 통일을 이야기 하나?』 등 7개 특강 (현장학습 2회)	홍규덕
	이화여대	『북한·통일에 관한 기초적 이해』 등 5개 특강 (현장학습 1회)	김석향
	창원대	『통일준비의 방향과 과제』 등 4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이기완
	한라대	『김정은 리더십과 북한변화』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1회)	박철수
2017년 2학기	한양대	『통일과 한반도 평화』 등 5개 특강 (현장학습 1회)	류주한
	국민대	『4차 산업혁명과 통일코리아 위상』 등 12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여현철
	대전대	『문화로 여는 통일』 등 3개 특강 (현장학습 1회)	박광기
	덕성여대	『북한 여성의 삶을 엿보다』 등 9개 특강 (현장학습 1회)	박진수, 조진만
	동아대	『통일시대와 대학생』 등 4개 특강 (현장학습 2회)	황기식
	연세대 의대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통일준비』 등 5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전우택
	창원대	『통일과 대학생의 역할』 등 4개 특강 (현장학습 2회)	이기완
2018년 1학기	춘천교대	『교육신경과학에 근거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도방법』 등 5개 특강 (현장학습 2회)	추병완
	한남대	『독일 통일에서 찾은 한반도 통일전략』 등 5개 특강 (현장학습 1회)	최정진
	경상대	우리의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4개 특강	박균열
	대구대	북한의 시장화 진정과 북한사회 변화가능성 등 4개 특강	김정수
	대전대	문화로 여는 통일 등 3개 특강	박광기
	동국대	만화영화를 통해 본 김정은시대 북한사회 등 4개 특강	고유환
	이화여대 간호대학	북한여성의 삶과 의료 경험 등 11개 특강	신경림
2018년 2학기	전남대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6개 특강	김재기
	창원대	북한 내 한류 열풍과 북한사회 변화 등 5개 특강	이기완
	춘천교육대	통일 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 이해하기 등 6개 특강	추병완
	강원대	한반도 접경지역의 네트워크와 평화구축 등 3개 특강	김기석
	공주교대	통일교육으로 남남갈등 극복하자 등 4개 특강	박찬석
	광운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입장과 중북관계 등 6개 특강	신상진
	대구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한반도의 미래 등 4개 특강	김정수
동국대	북한 IT 또는 우주과학 등 6개 특강	고유환	

연번	학 교	특 강	책임교수
2019년 1학기	서울교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과 교육의 역할 등 4개 특강	윤철기
	연세대	통일과 분단에 대한 개괄, 북한 의료의 특징과 현실 등 4개 특강	전우택
	영남대	통일로 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3개 특강	구춘권
	이화여대	북한여성의 의료경험과 삶 등 4개 특강	김건희
	창원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 등 6개 특강	이기완
	춘천교대	통일 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 이해하기 등 3개 특강	추병완
	한림대	민족과 통일 등 3개 특강	김재한
	한신대	북한 영화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 등 3개 특강	조창석
	고려대(세종)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3개 특강	임재천
	공주교대	통일교육을 통한 남남갈등 극복 등 5개 특강	박찬석
	서울교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 등 5개 특강	윤철기
	원광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왜 어떻게 이를 것인가 등 4개 특강	이재봉
	전남대	북한과 우리 등 5개 특강	강구섭
	제주대	집단주의 교육과 북한식 복지제도 등 3개 특강	양길현
2019년 2학기	창원대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등 6개 특강	이기완
	춘천교대	하부르타로 여는 통일수업 등 4개 특강	추병완
	한림대	역사 현장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등 3개 특강	김재한
	대구가톨릭대	분단체제에서 평화공동체로 등 3개 특강	신난희
	동아대	올바른 통일관 정립과 통일교육 등 3개 특강	황기식
	성균관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상이한 시선간 소통 (토크콘서트) 등 4개 특강	조원빈
	순천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등 4개 특강	김성조
	영남대	북한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형성 등 5개 특강	구춘권
	을지대	북핵문제의 새로운 접근 등 4개 특강	이혁진
	이화여대	북한 여성의 의료경험과 삶 등 4개 특강	김건희
	전북대	한반도 해방 왜 더딘가? 등 6개 특강	안문석
	조선대	통일 Korea 상상 등 4개 특강	기광서
	창원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사회통합 등 6개 특강	이기완
	청주대	한반도 평화질서와 통일의 비전 등 4개 특강	유호근
춘천교대	건설적 논쟁으로 여는 통일수업 등 5개 특강	추병완	
2020년 1학기	공주교대	2031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의의 등 5개	박찬석
	국민대	2020 북한의 변화 및 국제정세 등 10개	여현철
	삼육대	한반도 경제 세가지 이야기 등 3개	함금윤
	연세대(원주)	갈등과 협력의 남북관계 등 8개	김형중
	원광대	통일을 꿈꾸는 청년에게 고함 등 6개	정혜정
	을지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경제 등 6개	이혁진
	창원대	영화 속 남북관계와 남한 한류 등 6개	이기완
	청주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재와 미래 등 5개	유호근
춘천교대	건설적 논쟁으로 여는 통일수업 등 6개	추병완	

2) 『통일·북한 강좌』 진행 상황

연번	학교	강좌명(안)	책임교수
2016 년 2학기	경상대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박균열
	경성대	『다문화시대의 통일정책』	한동호
	경희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김 현
	국민대	『북한정치와 사회』, 『통일문제의 이해』	이장영, 김주현

연번	학교	강좌명(안)	책임교수	
	대구대	『통일한국 비전』	안현호	
	대진대	미정 (DMZ 관련)	김정완	
	동서대	『우리가 풀어야 할 한반도 평화와 협력』	신정화	
	동아대	『팀티칭 IT를 통한 통일』, 『팀티칭 BT를 통한 통일』	강동완, 김현정	
	배재대	『통일과 대학생』	김 욱	
	부산대	『한반도 통일세미나』, 『통일생태계와 학제적 접근』	정용하, 김홍수	
	부산외대	『한반도 통일전략 통일외교』	손기섭	
	상명대	『통일코리아의 비전과 상상력』	권찬호	
	숙명여대	『북한의 실상과 통일 미래』	윤광일	
	시립대	『현대북한과 통일준비』	이병하	
	연대(원주)	『북한과 통일문제의 이해』	배득중	
	우석대	『통일문제의 이해』	송정호	
	중앙대	『통일한국의 이해』	조윤영	
	진주교대	『학교통일교육론』	이경원	
	창원대	『재미있게 이해하는 통일문제』	이기완	
	한라대	『통일경영론』	박철수	
	한양대	『통일 함께 만들기』	최진우	
	2017 년 1학기	가천대	『분단의 극복과 통일』	윤민우
		경상대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박균열
		경성대	『남북한 관계와 통일외교』	한동호
경희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김현	
국민대		『통일시대 지성인으로서의 역할』	여현철	
대구대		『통일한국 비전』	안현호	
대진대		『DMZ의 지정학적 여건과 통일』	김정완	
동서대		『함께 알아가는 분단,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신정화	
동아대		『미리보는 통일』	황기식	
배재대		『통일과 대학생』	김 욱	
우석대		『통일문제 이해』	송정호	
인하대		『남북관계와 통일준비』	김용호	
진주교대		『다문화와 통일교육』	이경원	
한남대		『통일코리아 비전과 리더십』	강구철	
한라대		『한반도 통일과 북한경제』	박철수	
한양대		『통일 함께 만들기』	최진우	
2017 년 2학기		건국대	『남북 문화와 통일문화』	김성민
		경희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김 현
		대진대	『DMZ의 지정학적 여건과 통일』	김정완
		동국대	『한반도 통일과 평화』	박순성
	배재대	『통일과 대학생』	김 욱	
	부산외대	『한반도 통일전략 통일외교』	손기섭	
	세종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전권천	
	숙명여대	『북한의 실상과 통일미래』	윤광일	
	연세대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허재영	
	우석대	『통일문제 이해』	송정호	
2018년	중원대	『통일과 생활』	문장순	
	진주교대	『학교통일교육론』	이경원	
	한양대	『통일 함께 만들기』	최진우	
2018년	건국대	분단의 지성사, 통일의 지성사	박영균	

연번	학교	강좌명(안)	책임교수
1학기	건양대	통일 내비게이션	이종호
	경성대	남북한 관계와 통일외교	한동호
	경희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김현
	국민대	통일시대 지성인으로서의 역할	여현철
	대진대	접경지역과 남북교류협력	김정완
	동서대	함께 알아가는 분단,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신정화
	동아대	함께하는 통일	황기식
	부산외대	한반도 통일전략 통일외교	손기섭
	상명대	통일코리아 비전과 리더십	권찬호
	세종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전권천
	숙명여대	생활 속 북한 알기	홍규덕
	안양대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위한 통일캠퍼스	장용철
	우석대	통일문제 이해	송정호
	중원대	통일과 생활	문장순
	진주교대	다문화와 통일교육	이경원
평택대	북한 사회문제의 이해	임상순	
한라대	한반도 통일과 경제	박철수	
한양대	통일 함께 만들기	최진우	
2018년 2학기	건국대	북한의 생활문화와 사람의 통일; 북한 생활문화 이해 및 문화통합 가능성 모색	정진아
	경상대	평화 사상과 통일의 길	박균열
	경성대	다문화 시대의 통일정책	한동호
	대전대	글로벌 정세변화와 한반도 통일	박광기
	대진대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 접경지역	김정완
	동서대	함께 알아가는 북한,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신정화
	동아대	미리 보는 통일	황기식
	세종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전권천
	숙명여대	생활 속의 북한 알기	홍규덕
	안양대	관문점 선언을 넘어선 하나된 한반도 구상	장용철
	연세대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허재영
	우석대	통일문제 이해	송정호
	중원대	통일과 생활	문장순
	진주교대	학교통일교육론	이경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프로세미나 - 관문점 시대, 새로운 통일학교	이재복
한남대	북한 정치와 통일	최정진	
한양대	통일 함께 만들기	최진우	
2019 년 1학기	건국대	북한의 뉴트렌트와 사람의 통일	정진아
	공주대	통합사회 통일교육	김경숙
	광운대	통일북한특강	신상진
	대전대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통합	박광기
	동서대	함께 알아가는 북한,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신정화
	동아대	미리보는 통일	황기식
	세종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전권천
	숙명여대	생활 속 북한 알기	홍규덕
	안양대	남북한 사회통합의 첫걸음, 통일·북한 바로 알기	장용철
	연세대(원주)	통일한반도와 지역협력	김형중
우석대	통일문제 이해	송정호	
진주교대	다문화와 통일교육	이경원	
한남대	북한 정치와 통일	최정진	
한신대	미래세대, 한반도 평화를 속의하다	조창석	
2019	가천대	분단의 극복과 통일	라종일
	건국대	적대성을 넘어 남북의 문화공동성 찾기:평화의 시대 통일의	도지인

연번	학교	강좌명(안)	책임교수
2019 년 2학기		시대	
	경상대	통일과 청년의 삶	배진석
	공주대	통일교육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기	김경숙
	대구대	일상으로 보는 통일	김정수
	대전대	글로벌 경제와 남북한 통합	박광기
	대전대	DMZ 접경지역과 통일경제특구	김정완
	동서대	통일·북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발신	신정화
	세종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전권천
	숙명여대	생활 속 북한 알기	홍규덕
	안양대	통일·북한 문제 편견없이 다가가기	장용철
	연세대(원주)	한반도 평화와 통일공공외교	김형중
	원광대	명사와의 통일 대담	이재봉
	진주교대	다문화와 통일교육	이경원
	한라대	한반도 통일과 평화경제	박철수
	한림대	통일·북한의 로컬적 이해	김재한
한양대	통일 함께 만들기	최진우	
2020 년 1학기	가천대	남북경제 및 교류협력과 북한이해	라종일
	경희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김현
	공주대	글로벌 한국과 북한 통일 이슈	김경숙
	대구대	통일한국의 비전	김정수
	대전대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통합	박광기
	대전대	DMZ 접경지역 생태와 인문학적 자원	김정완
	동서대	통일북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신	신정화
	동아대	미리보는 통일	황기식
	세종대	청년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전권천
	숙명여대	생활 속의 북한 알기	홍규덕
	연세대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허재영
	진주교대	다문화와 통일교육	이경원
	한림대	민족과 통일	김재한
	한라대	통일과 나: 말하다, 꿈꾸다, 나누다	박철수

Ⅲ. 대학 교양과정 분석

1. 평화/통일/북한관련 교양과목 분석 필요성

- 해방이후 75년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분단체제가 이어지면서 냉전논리는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 오히려 분단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 통일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음.
- 통일의지가 약화되는 현상은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두드러지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2019 통일의식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2019년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전체 응답자의 20.1%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9%가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음. 반면 “반반/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26.5%이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각각 15.7%와 4.8%였음.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한 응답자의 비중은 53.0%로 2018년의 59.8%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응답자의 비중은 20.5%로 2018년의 16.1%에 비해 증가하였음¹⁰⁾
-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남북한 화해와 번영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 통일·북한 관련 교육이 매우 절실함
- 수집가능한 대학 교양과정 정보를 검토하여 10년간 대학에서 북한·통일관련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은 교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생산하여 시대정신을 정립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장임.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 우리 공동체의 위치를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그러므로 남북 분단의 처지를 더욱 절박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중심의 국제관계를 명철하게 파악하는 소양이 필요함.
- 5개 대학(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양과정을 10년간 분석하여 통일·북한, 한국근현대사, 국제관계에 관한 기초수

10)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35

준의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모색해보도록 함

2. 가천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가. 교양과정 개관

- 북한/통일, 한국현대사, 한반도 주변국에 관련한 과목은 ‘핵심균형교양과목’(이후 ‘융합교육과목’으로 명칭 변경) 범위 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음
- 2010~2013학년도까지 ‘핵심균형교양과목’에서 한국현대사 관련, 한반도 주변국 관련한 과목이 1개씩 개설되어있으며, 2014학년도부터는 ‘융합교육과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8학년도부터는 북한/통일 관련 과목까지 개설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동아시아의 이해’는 2010년에서 2020년도까지 빠짐없이 개설된 한반도 주변국에 관련한 수업임
- 2010년도 ‘한국 근현대 백년의 이해’로 시작하여, 2013년도에 ‘한국근현대역사와 세계’로, 2016년 ‘한국현대사와 세계’로 수업명이 변경되었음
- 2018학년도부터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이라는 수업이 개설되어 2020학년도까지 운영 중에 있음
- 2015학년도부터 ‘기초교양과목(교양필수)’에 한국사가 개설되었음. 그러나 교양교육과정해설에 북한/통일 관련한 언급이 없기에 조사한 과목에 포함하지 않았음

나. 교양교과 분석

1) 2010년

- 경원중점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	0	0	0

핵심균형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3	0	1	1

일반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2	0	0	0

기초교양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88	0	0	0

2) 2011년

중점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	0	0	0

핵심균형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8	0	1	1

일반교양과목(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0	0	0	0

기초교양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88	0	0	0

3) 2012년

중점교양과목(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	0	0	0

핵심균형교양과목(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80	0	1	1

일반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4	0	0	0

기초교양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1	0	0	0

4) 2013년

중점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	0	0	0

핵심균형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80	0	1	1

일반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5	0	0	0

기초교양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1	0	0	0

5) 2014년

기초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1	0	0	0

융합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94	0	1	1

자유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7	0	0	0

6) 2015년

기초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1	0	0	0

융합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85	0	1	1

일반선택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8	0	0	0

7) 2016년

기초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7	0	0	0

융합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96	0	1	1

일반선택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59	0	0	0

8) 2017년

기초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6	0	0	0

융합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4	0	1	1

일반선택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63	0	0	0

9) 2018년

기초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5	0	0	0

융합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6	1	1	1

일반선택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68	0	0	0

10) 2019년

기초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5	0	0	0

융합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6	1	1	1

일반선택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66	0	0	0

11) 2020년

기초교양과목 (교양필수)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6	0	0	0

융합교양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3	1	1	1

일반선택과목 (교양선택)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53	0	0	0

3. 동국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가. 교양과정 개관

- 2010~2013년도까지 ‘핵심교양’과 ‘일반교양’에서 북한/통일, 한국현대사,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2013년도 이후에는 ‘일반교양’에서만 개설되었음.
- ‘기초교양’(2013년도부터는 ‘공통교양’으로 명칭 변경)과 ‘핵심교양’의 경우 2010~2020년(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지 않은 2012년 제외) 10년간 북한/통일, 한국현대사, 한반도 주변국에 관련된 과목이 전무함
- 교과목 명칭에 ‘북한’이 들어간 유일한 과목인 ‘북한 사회의 이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에 ‘북한의 이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꾸준히 개설됨
- ‘한미관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목은 2010~2020년도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개설됨
- 동아시아와 관련된 수업은 2010년에 3개, 2011년에 4개, 2013년에 4개, 2014년에 2개, 2015, 2016년에 1개로 점차 감소하다 2017~2018년도에 개설되지 않았으며, 2019년 2개, 2020년 1개로 다시 개설됨

나. 교양교과 분석

1) 2010년

기초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2	0	0	0

핵심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89	0	0	3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5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2	1	0	1

자기개발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2	0	0	0

2) 2011년

기초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7	0	0	0

핵심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80	0	0	3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8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90	1	0	1

자기개발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1	0	0	0

3) 2013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5	0	0	0

핵심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6	0	0	3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4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60	1	0	2

4) 2014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39	0	0	0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1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9	1	0	3

5) 2015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38	0	0	0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1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8	1	0	2

6) 2016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41	0	0	0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2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1	1	0	2

7) 2017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40	0	0	0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1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7	1	0	1

9) 2018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39	0	0	0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7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8	2	0	1

9) 2019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40	0	0	0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3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44	1	0	4

10) 2020년

공통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3	0	0	0

학문기초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3	0	0	0

일반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69	1	0	3

4. 서강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가. 교양과정 개관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 한국의 형성’,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이 중핵과목으로 개설되어왔음.
- ‘통일과 민족의 미래’, ‘북한의 이해’ 수업이 2014년 들어 ‘북한의 이해와 통일 후 한국’로 통합되었음.
- 평화 관련 과목인 ‘정의와 평화’는 2014년 이후 폐강되었음. 반면 ‘평화교육론’은 2010년부터 꾸준히 개설되고 있음.
- 2010년부터 중핵 과목은 한국현대사 과목 1개, 한반도 주변국 과목 1개로 고정이었음.
- 일반선택 과목은 북한/통일(평화) 관련 과목 4개가 2개로 줄었음.

나. 교양교과 분석

1) 2010년, 2011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9	0	1	1

[한국현대사 과목]

- ▷ ‘현대 한국의 형성’ (강의 3시간) :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사의 전개를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적 경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근대화, 민족 운동, 해방과 독립, 한국전쟁, 민주화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한반도 주변국 과목]

- ▷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 (강의 3시간) : 현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국제 경향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비교 검토한다. 근대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대두 등 근·현대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22	4	0	0

□ [북한/통일 관련 과목]

- ▷ ‘통일과 민족의 미래’ : 통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일의 국제환경, 분단국 통일 사례, 통일 시나리오 평가 및 통일의 과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 ▷ ‘북한의 이해’ : 북한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영역의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자연환경, 사회환경, 역사적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사회, 정치, 종교, 군사, 외교, 경제, 문화, 교육의 실상을 다루며, 남북한의 비교를 시도한다.
- ▷ ‘평화교육론’ (강의 3시간) :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 현대문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평화의 문제를 생태적, 생활 세계적 및 주관적 차원 등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특히 평화라는 가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고 그 교육적 실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 ▷ ‘정의와 평화’ : 인간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기 발전과 완성을 성취하며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생활에는 정의와 평화라는 목표가 필요하다. 정의와 평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 실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이바지한다.

2) 2012년, 2013년

□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6	0	1	1

□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27	4	0	0

3) 2014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55	0	1	1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71	2	0	0

4) 2015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57	0	1	1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75	2	0	0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 북한의 이해와 통일 후 한국 (3학점) : 통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통일의 국제 환경, 분단국 통일 사례, 통일 시나리오 평가 및 통일의 과제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 ‘평화교육론’ (강의 3시간) :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 현대문명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평화의 문제를 생태적, 생활 세계적 및 주관적 차원 등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특히 평화라는 가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고 그 교육적 실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5) 2016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0	0	1	1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91	2	0	0

6) 2017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0	0	1	1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85	2	0	0

7) 2018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2	0	1	1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95	2	0	0

8) 2019년

공통필수교과, 공통선택교과, 전공입문교과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56	0	1	1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08	2	0	0

9) 2020년

공통필수교과, 공통선택교과, 전공입문교과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56	0	1	1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10	2	0	0

5. 충북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가. 교양과정 개관

- 2019년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과목 영역의 분류가 달라졌음.
-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전체 강의 수는 200개 대를 유지하고 있음.
- 간접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강의는 3개 이하였음.
-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개설되었음.
- 2012년부터 교육과정에 포함된 ‘영화로 읽는 인권과 복지’를 포함한 북한/통일 관련 과목은 인권에 대한 포괄적 논의 과정에서 탈북민을 조명하는 정도였음.
- 북한을 단일의제로 하는 강의 ‘북한 사회의 이해’가 2020년에 처음으로 생겼음.
- 2020년 들어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강의 ‘다문화의 새로운 이해’ ‘아시아 공동체의 사회와 문화’ 등이 생기는 것으로 보임.

나. 교양교과 분석

1) 2010년

- 도구교양, 중핵, 학문기초 영역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8	0	1	0

- [한국현대사 과목]

- ▷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 강의의 주제는 강의와 다른 방법을 통해 한국근현대사의 학습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일반교양영역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9	0	0	0

2) 2011년

도구교양, 중핵, 학문기초 영역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6	0	1	0

일반교양영역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6	0	0	0

3) 2012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16	0	1	0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8	2	0	0

[북한/통일 관련 과목]

- ▷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제’ : 지구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이주문제와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다루면서 타자와 함께 어울려 사는데 필요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함. 다문화 사회와 더불어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탈북자, 디아스포라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 및 그 자녀의 사회적응과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 소양을 함양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 ▷ ‘영화로 읽는 인권과 복지’ :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구 혼성성의 증가에 따른 ‘다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이슈를 인권 보장의 시각에서 영화라는 예술적 재현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젠더(gender) 차별, 소수자 차별(장애, 성적 지향, 가족유형,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생명윤리, 존엄사와 안락사 등을 주제로 하여 ‘다름’이 ‘차별’로 연결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현대사회에서 인권은 무엇을 의미하고 인권보장실현을 위한 ‘복지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을 함으로써 고찰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4) 2013년

기초교양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29	0	1	0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0	1	1	0

[한국현대사 과목]

- ▷ ‘근·현대사의 역사와 인물’ : 한국사에서 근·현대사는 격동의 시기로 이해된다. 근대의 기점을 어느 때로부터 잡을 것이냐는 논란에서부터, 근대화와 자주독립, 반봉건과 반외세 그리고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 이후 민주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본 강의는 근·현대사의 전개 및 쟁점을 통하여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협력과 일치에 도달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사상과 행적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세우고자 한다.

5) 2014년

중핵, 학문 기초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3	0	1	0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7	1	1	0

6) 2015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37	0	1	0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73	1	1	0

7) 2016년

중핵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44	0	1	0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5	1	1	0

8) 2017년

공통필수교과, 공통선택교과, 전공입문교과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59	0	1	0

일반 선택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9	1	1	0

9) 2018년

도구교양, 중핵영역, 학문기초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59	0	1	0

일반교양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69	1	1	0

10) 2019년

개신기초교양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	0	0	0

일반교양, 확대교양, 자연이공계기초과학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12	1	2	0

11) 2020년

기초교양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10	0	0	0

일반교양, 확대교양, 자연이공계기초과학 과목

총 교양과목 수	북한/통일 관련 과목 수	한국현대사 과목 수	한반도 주변국 과목 수
211	1	2	0

6.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 분석

가. 교양과정 개관

- 2013학년도부터 개설된 '자유선택' 교양의 '통일과 북한사회' 과목만이 북한/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현대사, 한반도 주변국에 관한 과목은 찾지 못함
- 한국현대사에 관련된 과목은 '한국사'가 조사한 모든 학년도에서 '교양기초(선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과목 해설에 북한/통일에 관련하여 언급이 없기에 조사한 과목에 포함하지 않음

나. 교양교과 분석

- '통일과 북한사회'(2학점) :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나 사명감, 의무감 등에 대해 배움으로써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IV. 통일이전 독일의 평화통일 교육

1. 통일 이전 서독의 대학체제

가. 서독의 국가이념과 국가체제

-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독일국가도 근대사회의 자유주의적 가치관 - 프랑스혁명의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이념 - 에 기초하고 있음. 유럽의 다른 나라의 대학들처럼, 독일의 대학도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움. 즉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대학은 근대사회의 자유주의적 가치관 - 프랑스혁명의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이념 - 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임.¹¹⁾
- 독일은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서 근대국가가 만들어졌음(독일통일/비스마르크). 이 과정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고유의 국가이념이 탄생되었음. 자유방임적 질서의 폐해를 공공부문이나 국가의 개입으로 극복해 온 사회 국가의 전통이 생겨났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나찌즘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했음. 2차대전 이후 서독은 단순한 자유주의를 넘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았고,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 그 결과 서독은 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그리고 연방주의와 조합주의라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음.
- 서독이 연방국가를 채택한 것은 국가권력의 중앙집중이 나찌의 전체주의를 낳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을 동일한 법체계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이 들어 있는 것이었음.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기본법(헌법)이 아무런 변동 없이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음.
- 서독의 국가이념과 국가체계들은 서독의 교육이념 및 교육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서독의 국가이념은 2차대전 승전국들과 주변국의 지지를 받았음. 전후 독일은 나찌시대의 전체주의적 문화유산으로부터 독일인들, 특히 젊은이들을 어떻게 재교육할 것인가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음. 이러한 나찌청산의 과제는 승전국들의 요구이기도 했음. 예컨대 나찌즘문화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서방과 소련에 의해 각각 ‘재교육’계획 및 ‘반파시즘 교육’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입안되어 있었으며, 1945년 8월 2일의 포츠담회의의 성명서에도 반나찌교육을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11) 바너드, H.C.지음, 서정복 옮김, 프랑스혁명과 교육개혁, 삼지원, 1996

(Deuerlein, E., Deklamation oder Ersatzfrieden? Die Konferenz von Potsdam 1945, Stuttgart et al, 1970, pp.182-185)

- 그러나 서독의 교육체제와 교육이념들은 서독의 건국과 함께 곧바로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60년대와 70년대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교육개혁의 결과임. 왜냐하면 전후 곧바로 성립된 동서냉전체제는 서독사회를 민주화하는 문제보다 서독을 서방세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문제에 더 몰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음. 즉 패전 후 새로 정부가 수립된 1949년부터 1963년까지 동서독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음.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민주주의보다 반공주의를 앞세우게 만들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1963년부터 시작되어 1969년에 열매를 맺은 서독의 동방정책(빌리 브라튼)은 동서독 사이의 적대적 공존관계 즉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1민족 2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냈음. 유럽의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서독은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원래의 교육이념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
-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 정치권력인 분단체제가 먼저 극복되어야 - 이를테면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전폭적인 개정 - 비로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가능해짐.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게 되는 반공주의 반북주의와 모순되는 이념이기 때문임.

나. 서독의 국가체제와 교육체제

-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처럼 서독의 교육체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놓여 있음. 그 결과 대학을 포함한 서독의 각급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학교임. 그러나 여기서 국가책임이라는 말은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의 결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있을 뿐임. 즉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교육은 자율성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Arbeitsgruppe Bildungsbericht, pp.20-21)
- 연방국가로서 국가는 연방(Bund)의 국가기구 즉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Land)의 국가기구 즉 주의회와 주정부를 포함하는 말로 발전되었음. 국가책임이라는 말은 연방의 책임 뿐 아니라 주의 책임을 포함하는 말이 되었음. 이러한 연방국가의 성격은 특히 교육체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문화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해 온 독일의 역사적 전통에서 연유하는 것임. 그 결과 서독의 거의 모든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 - 방송에서

부터 국립도서관 및 국립극장에 이르는 문화부문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부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실행감독 - 은 주정부의 책임이 되었음.

- 서독 기본법(헌법)은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모든 학교제도가 국가의 감독 아래 놓인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 및 교육부문에 관한 권한은 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교육에 관한 계획, 조직,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총칭함. 교육목표, 교육에 필요한 자원, 교육과정 등이 포함됨. 주의회는 교육에 관한 법률제정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책임지며, 주정부 특히 주의 교육부는 교육제도발전과 학교행정을 책임짐. 주의회와 주정부가 이러한 법률제정 및 계획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곧 관료들에 의해서 학교관리와 교원양성 및 교원관리가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말하자면 주는 대학에서의 교사양성과정, 교원자격시험, 교사의 발령과 전보에 대해서 책임지며,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의 재정 및 교수임용을 통제감독하며, 이에 대한 재정을 부담함. 대학교수, 조교 및 기타 대학의 인력은 일반적으로 주의 정식 공무원(Beamte)이거나 주의 계약고용인(Angestellte)임. 따라서 국가 즉 주정부는 교수임용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교수를 임명하기 위해서 대학은 주장관에게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주장관은 대개 첫 번째 후보를 교수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임. 국가는 국가인정 자격시험을 관장함. 이를 통해서 법관, 의사, 교사, 약사 등의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등의 집단이기주의 및 횡포를 방지하고 있음. 또한 시험을 통해서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교육예산은 주로 주정부에 의해 부담됨. 때문에 교육에 관한 연방정부나 연방위원회 또는 유럽공동체의 결정 등에 대해서 주정부는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개별학교나 대학은 주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됨. 말하자면 이러한 예산배분구조는 '주정부의 문화에 대한 권한'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조합주의적 연방주의

- 대학체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로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지만, 서독의 대학은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음. 서독의 기본법이 '주정부의 문화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예외 - 다시 말해서 교육체계에 대한 연방의 권한 - 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주들이 자발적인 정치적 협력을 통해서 교육체계의 국가적 통일을 도모해 왔기 때문임.(이른바 '조합주의적 문화연방주의'(Kooperativer Kulturföderalismus)) 서독의 기본법은 교육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합주의적 문화연방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보장하고 있음.

1) 문교장관협의회

- 서독의 문교장관협의회(KMK: Die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RD, 이하 KMK로 표기함)는 1949년 주정부의 문교부장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구모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1948년 동서독이 분단되기 전에 존재했던 독일교육부장관협의회(Konferenz der deutschen Erziehungsminister)의 후신임.
- KMK의 임무는 각 주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서 독일전체의 통일된 문화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음. KMK는 각 주의 문교부장관의 대리인들로 구성된 협의회(Plenum)와 협의회가 투표에 의해 구성하는 의장단(Präsidium)과 1년 임기의 대표(Präsident), 그리고 실무대표자회의(Amtschefkonferenz), 전문위원회(Ausschüsse), 실무전문위원회(Unterausschüsse)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KMK는 상설비서국을 두고 문화교육분야의 정책에 관해서 연방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독일학술대외교류처(DAAD: Deutsche Akademische Austauschdienst), UNESCO 등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가지고 있음.
- KMK에서 의결된 사항은 주정부의 장관권한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정치적 구속력을 가짐. 그러나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 KMK의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며, 이 권고사항은 주의회의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가짐. 독일 각 주의 교육체계의 기본구조는 KMK의 권고안, 특히 1955년의 뒤셀도르프협약(Düsseldorfer Abkommen)과 1964년의 함부르크협약(Hamburger Abkommen)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2) 교육연구지원에 관한 연방 & 주 협력위원회

- 서독의 기본법에 근거하여 1970년에 만들어진 것이 '교육계획과 연구지원에 관한 연방과 주사이의 협력위원회'(BLK: B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이하 BLK로 표기함)임. KMK와 달리 BLK에는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도 참여함. 통일되기 전까지는 11명의 주대표와 7명의 연방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주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반면에 7명의 연방대표는 11개의 투표권을 행사함. 이 기구는

만장일치제를 통해서 권고사항을 의결하며, KMK와 마찬가지로 이 기구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주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

- BLK는 독일전체 교육체계에 대한 장단기계획, 그리고 교육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공함. 즉 교육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개발함. 20년간 BLK는 약 2000개의 교육개혁모델을 제시했고, 이 모델개발을 위한 자금은 연방과 주가 반씩 부담하였음. BLK는 대학모델, 직업교육모델, 신정보통신기술진흥계획, 음악예술교육모델, 환경교육모델, 외국인청소년통합교육모델, 장애청소년 및 장애인 교육모델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3) 교육자문위원회

- KMK와 BLK는 공식적인 국가기구로서 국가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지만, 교육자문위원회는 학술과 교육의 전문가, 즉 학자와 교수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에 자문역할을 담당함.
- 이러한 조직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1953년부터 65년까지 활동했던 ‘교육제도를 위한 위원회’(Deutsche Ausschuß für das Erziehungs- und Bildungswesen)였고, 1965년에는 ‘독일교육자문위원회’(Der deutsche Bildungsrat)가 후속기구로 설립되었음.
- 독일교육자문위원회는 교육위원회(Bildungskommission)와 행정위원회(Regierungskommission)로 구성되었으며, 전자에는 교육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에 관한 대안과 권고사항을 마련하였고, 후자에는 주의 문교부장관과 연방문교부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전자의 권고사항의 실행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하였음. 그러나 1973년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와 야당인 기민당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 휩쓸려 결국 1975년에 해체되었음.

4) 학술자문위원회

- 학술자문위원회(Der Wissenschaftsrat)는 독일교육자문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대학 및 연구체계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임. 학술자문위원회는 대학 및 연구체계에 관한 주와 연방의 계획을 상호조정하는 임무를 띠고 1957년에 주와 연방사이의 협약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75년부터는 대학 및 연구체계의 구조적 발전 및 내용상의 발전에 관한 제안 및 정책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 이 위원회는 독일교육자문위원회처럼 각각 전문분야와 정치분야를 담당하는 학술위원회(Wissenschaftskommission)와 행정위원회(Verwaltungskommission)로 구성되어 있음. 후자에는 주와 연방의 정부대표가, 전자에는 중요한 학술조직과 연방 및 주정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부문 및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함.
- 학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은 학술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재적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 기구의 대표들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미 실무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 사이의 중재가 이루어짐.
- 이 기구는 대학, 연구조직, 연구자금 등의 신설과 증설, 재정 및 인원 계획, 대학학칙, 대학구조, 교직원구조, 전문대학의 법적 위상, 대학경쟁력강화방안 등에 관한 권고안의 의결을 통해서 독일의 대학 및 연구체계의 구조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음.

5) 대학총장회의

- ‘대학총장회의’(HRK: Hochschulrektorenkonferenz, 이하 HRK로 표기함)는 독일대학의 “이익집단”임. 주의 대학조직의 대표 즉 총장을 구성원으로 하며, 대학의 이익이 대학정책 및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구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임. 그러나 HRK는 일반적인 이익집단과 달리 대학들에게 대학에 대한 사회 및 국가기구의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쌍방향 이익집단임.
- 이익집단으로 HRK는 독일의 교육 및 대학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는 아님. 그러나 HRK는 독일대학의 사회적 위상 및 자율전통 덕분에 여론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요약하면, 서독기본법은 연방에게 대학체계의 구조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은 HRG과 대학설립지원법(Hochschulbauförderungsgesetz)을 제정하여 대학체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체계는 일반 교육체계에 비해 연방의 중앙권력에 더 의존적이며, 일반학교보다도 더 통일된 구조를 갖고 있음. 그러나 대학체계에서도 주정부의 문화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국가의 대학에 대한 책임

은 주로 주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짊어짐. 이러한 복잡한 책임권한관계는 ‘조합주의적 연방주의’의 원칙 아래 조정되며, 앞에서 소개된 여러 협의기구들이 이를 담당함.

2.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을 대신하는 정치교육

- 2차대전 이후 서독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았고, 국가이념은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이러한 국가이념은 2차대전 전승국들과 주변국들의 압력을 받은 측면도 없지 않음. 예컨대 반나찌즘 교육을 강제한 포츠담회의의 성명서에서 드러나듯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었음. 그러나 서독은 동독과 마찬가지로 나찌즘 청산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었음. 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독일인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서독의 정치체제와 교육체제는 이러한 국가이념과 교육이념의 자생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임. 또 하나의 증거는 냉전체제가 강제한 동서독의 분단체제가 1963년을 계기로 붕괴되었다는 데에서 찾아짐. 동독과 서독 사이의 냉전체제 즉 독일의 분단체제는 1949 - 1963(1969)까지 불과 15년내지 20년간 일시적으로만 유지되었음. 이러한 분단체제 극복은 서독의 국가이념, 즉 민주주의이념에 기 초한 것임.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임.
- 분단의 극복은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의 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짐. 그러나 독일은 민족주의가 나찌즘으로 나타난 처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서독은 민족주의가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만 했음. 나찌즘이라는 처참한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모든 수준에서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음. 즉 민주주의에 의해서 민족주의의 공격적 성향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이러한 국가이념과 정책은 나찌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주변국의 지지를 받았음. 이러한 민주주의이념의 확산 덕분에 독일은 1969년에는 분단체제를 넘어설 수 있었고, 1990년에는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음.

1) 민주주의이념에 반하는 분단체제

-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타인도 주체임을 인정하는 이념임.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은 다수결주의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있음. 서독은 이러한 민주

주의이념을 국가이념과 교육이념으로 삼았음.

- 냉전체제는 이러한 민주주의이념의 실현에 걸림돌이었음. 누군가를 적으로 삼는 것은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임. 동독을 적으로 만드는 냉전체제는 민주주의이념과 충돌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서 1963년부터 서독은 “1민족 2국가” 원칙을 내세웠고, 1969년 동독과 국교를 수립했음. 동독과 서독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하는 정상국가관계가 되었음.
- 독일의 동방정책은 민주주의이념에 기초함으로써 민족화해에도 불구하고 극우적인 민족주의를 예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주변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음. 다른 한편 분단체제가 빨리 극복됨으로써(15-20년의 분단체제) 분단체제의 반민주적 문화와 교육이 서독사회에 내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 분단체제를 극복한 뒤에야 비로소 서독은 1949년에 수립한 민주주의 국가이념과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음

2) 서독의 정치교육 주체

- 서독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 학술연구단체, 정당설립단체 등에 의해서 대단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치교육은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음.
- 1952년 국가 주도로 내무성 산하에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을 설립했음. 독일연방교육원은 내무성 관리 3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연방의회의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학자 9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2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임. 연방정치교육원은 산하에 15개의 주정치교육원을 두고 있음.
- 학교의 정치교육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독의 ‘조합주의적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교육원칙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립한 보이텔스바하(Beutelsbach) 3대원칙임.
- 학술연구단체는 정치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장임. 정치교육학회(Gesellschaft fuer Politikdidaktik und politische Jugend- und Erwachsenenbildung), 독일 정치교육협회(Deutsche Vereinigung fuer Politische Bildung) 등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이지만, 정치교육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단체들임.

- 정당들은 자율적인 정치교육단체와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와 기관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비록 정치노선의 차이에 따라 정치교육의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정당들은 민주주의라는 국가이념 그 자체를 공유하고 있었음. 즉 정당들은 사회의 어느 부문을 더 민주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을 뿐, 모두 다 민주주의이념을 지지했음.

3)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 서독의 정치교육은 나찌즘의 청산을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음. 그러나 나찌즘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치이념에 대한 비판, 민족주의에 대한 감상적 비판, 전체주의에 대한 피상적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 서독은 근대사회를 만들어온 프랑스혁명의 이념 즉 민주주의이념의 근본적인 의미를 성찰하는 데에 이르렀음. 즉 과학과 이데올로기의 구분, 성찰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에 대한 구분,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민주주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음.
- 따라서 서독의 정치교육은 학계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이론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중들이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즉 대중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현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를테면 빈부격차와 갈등, 동서독의 적대관계, 테러리즘, 여성과 환경문제, 이민자와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민주적 자율적 해결방안을 교육했음.
- 이러한 서독 정치교육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보이텔스바흐’합의임.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자기교육한다는 원칙은 대학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대학과 학교의 자율성에 방향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즉 대학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임. 당연하게도 보이텔스바흐합의는 교육에 내용에 대한 합의라기 보다는 방법에 관한 것임. 이 합의는 3가지를 핵심으로 하는데 첫째는 강제성을 금지하는 것임 여기서 강제성이란 강요에 의한 교화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것임. 두 번째는 논쟁성의 유지인데, 수업시간에도 현실적인 논쟁상황을 전제하여 이를 재현하는 것을 말함. 세 번째는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임. 이는 피교육자 자신의 현실적 맥락과 이해관계를 기초로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 통일교육은 이러한 정치교육의 일부로 시행되었음. 즉 별도의 통일교육은 없었음. 분단체제 또는 적대적 관계가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불인정에서 비롯되는 것

이며 반민주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통일교육이었음. 따라서 동독의 사상과 이념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 동독국가의 체계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 동독인들의 현실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이었음. 물론 서독과 동독을 비교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의 비교는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3. 서독의 정치교육이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가. 근대사회의 이념과 냉전체제

-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이념은 자유주의국가들만의 독점물이 아님. 공산주의국가들은 자신들이 프랑스혁명의 이념을 이어받고 있다고 주장함.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좌우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모든 근대국가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것임.
- 서독은 이러한 민주주의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왜곡 분화되어 갈등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했음. 즉 국가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인가에 주목했음. 덕분에 서독의 민주주의이념은 동독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을 수 있었음.
- 서독의 정치교육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 민주주의에 기초하였음. 이러한 정치교육은 분단체제 즉 동서독의 적대관계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고, 결국 분단체제를 넘어서려는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음. 서독의 정치교육은 분단체제 해체의 원동력이었고, 동서독의 평화공존체제의 밑바탕이었음.

나. 민주주의와 주변국의 평화공존

- 서독의 정치교육은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체제를 이루는 데에 밑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념과 체제가 전혀 다른 소련과 동유럽국가들과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데에도 밑바탕이 되었음. 독일통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정책들이었지만 그러한 계기가 독일통일로 이어진 원동력은 서독인들이 키워 온 민주주의이념이었음. 즉 동서독의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한 정치교육, 그리고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한 정치교육은 다름 아님 민주주의교육이었음.

-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상호관계는 경쟁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교육이 이러한 경쟁을 적대적 관계로 서술할 경우, 경쟁관계는 적대관계로 내면화될 것임. 반대로 서술할 경우 평화공존관계로 내면화될 것임. 물론 현실의 정치권력들의 움직임은 교육에 앞서는 힘임을 부정할 수 없음. 그럼에도 정치교육은 보다 긴 현실을 교육해야 할 것임. 냉전체제와 경쟁체제가 역사적으로 일시적인 것이며, 미래의 평화공존을 교육해야 할 것임.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민주적 성격, 러시아와 중국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민주적 성격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는 교육은 한반도 평화공존체제와 주변국들 사이의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될 것임.

다.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 통일교육은 민주주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함. 이렇게 될 경우 통일교육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기’로 이어져야 할 것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교육이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자기교육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임.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몽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음. 즉 국가교육은 국민들 스스로의 자기계몽을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스스로의 자기계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장애물들 - 역사적인 적폐 - 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과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이것은 대학의 통일교육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현대역사와 국제관계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함.
-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학의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 하고, 이를 위해서 단순한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서서 ‘현대역사’와 ‘국제관계’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함.

V.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모델

1. 대학교양 평화 통일교육을 위한 전제

가. 북한·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의 전환

- 통일은 단순히 국경이 무너지고 물리적인 장소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통일은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이 복원되는 ‘마음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 사회에서 북한·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평화통일 교육의 내용으로 담겨야 함
- 대학생들의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이해가 방송 또는 유튜브 등에서 보고 듣는 탈북민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소회를 언급하는 수준이라면 진정한 남북의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통일문제에 관한 좀 더 진지하면서 일상에 밀착된 접근이 필요하며, 평화통일교육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야 함
- 통일은 남북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문화적, 일상적 공통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도 이러한 공통적인 것과의 ‘만남과 소통’을 중시해야 함

나. 평화와 통일은 과정

- 통일은 일순간, 정치·사회적 ‘사변’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점진적,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물론 ‘사변’적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인 부분일 뿐이며 진정한 통일은 남북 공동체 주민들의 내면적 통합이 수행되어야 함.
- 평화통일 교육은 이러한 내면의 통합을 고무할 수 있어야 함. 통일은 외부적 독립적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부에서 추동하는 것이며, 과정으로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물론 남북한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 국제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커다란 변수가 될 것임. 그러므로 평화통일 교육은 국제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남북한의 정치사회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 평화통일 교육에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함.
-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통일에 의해 담보될 수 있으며, 통일은 자연스런 만남임.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하며, 그것은 문화·예술·일상적 측면에서의 교류로 심화됨.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의 감성적 훈련이 필요함

다. 대학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 대중강의와 같은 일방적 접근이 아닌 생각과 소통을 상호작용하는 쌍방향활동이 필요함. 일방적 지식전달식의 교육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관심과 참여도가 저하됨. 수업이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느끼기 쉬움. 특정 주제에 대해 스스로 사고하고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 바람직함.
- 토론과 세미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입체적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시의적절한 뉴스, 유튜브 시청, 북한 매체분석, DMZ·판문점 등의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등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
-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걸맞는 태도,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함. 통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추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없는 태도,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함.

2. 평화통일교육 모델 제안¹²⁾

가. 평화·통일 교양교과 수업 운영

1) 교양교과 수업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 대학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수업 실시
- 교과목의 내용은 통일 문제(통일의 의의와 필요성, 남북관계의 전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 통일노력, 통일방안 비교, 통일의 비전과 과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통일 미래상, 분단과 평화 평화경제, 분야별 남북교류 및 인도적 협력, 통일인문학 등)와 북한 이해(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 변화 전망, 북한 분야별 실상, 주민생활 등)을 포함함
-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수업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12) “통일교육원,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2020”을 참조하여 작성

- 통일·북한관련 특강을 수시로 개설하고 책임교수 인센티브제 도입하여 수업의 질을 높임. 팀티칭, 프로젝트 학습 등 효과적인 교수방법 도입 및 강의 내용 다양화를 통해 만족도와 관심 제고
- 맞춤형 현장 견학 등을 반영하는 교과목 편성을 통해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
- 한반도 정세, 평화통일과 교육, 국제정세와 통일한국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사회과학 전공과목에 배치하여 교양교과와 유기적인 연계를 꾀함
- 교양교과 전반에 외부 전문 강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2)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평화·통일 수업

-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모색하여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업이 실시되도록 함.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계, 여성계 등과 연계하는 평화·통일교육을 개발
- 지역사회와의 상호 연계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수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공유 및 강사 공동 활용 등 협의함
- 민주평통 등 사회단체를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대학과 지역 평생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여성, 종교단체 등과 협업을 모색함

3) 뉴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수업

- 소통, 참여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수업을 개발하여 미래세대와의 소통 및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함.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영상·사진 중심의 콘텐츠로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편의성과 선호를 반영, 교육 자료 게시 매체를 다양화
- 유튜브를 교육채널로 활용함 클립영상, 사이버강좌 영상, 교육 자료, 웹 토크 등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업현장에 투입
- 웹툰·클립영상·동영상콘텐츠 리뷰·포토에세이 등의 형식에 평화·통일 메시지를 담은 수업을 제작하여 SNS로 배포함.

나. 토론 및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개발

1) 학생 체험 중심 통일동아리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 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및 자유학기제 활동(주제선택활동 등)과 연계한 활동을 권장함
- 현장체험 및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축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지도 교원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에 참여
- 구체적으로 학생 평화·통일체험 프로그램,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평화·통일 공감 캠프 등 교원·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함.
- 교육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평화·통일교육 워크숍 △통일시대를 맞는 평화포럼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사제동행 평화·통일체험 △학생 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토크콘서트, 영화제 등) 등이 있음
- 시·도 교육청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사연구회(학습공동체) △평화·통일동아리 △교원·학생 국내·외 체험학습 사업 등이 있음

2) 대학생 자율적 통일액티비티 지원

- 기존의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통일논문 및 홍보영상 공모 등의 활동이외에 다양한 통일활동을 개발·수행함
- 대학 내 평화와 통일 관련 퀴즈, 북한 영화 시사회 등을 개최하고 북한출신 재학생과 함께하는 남북 청년 합동 유튜브(YouTube), 청춘 LIVE 등을 진행함
-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경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등 상생과 번영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길을 모색함
- 직접적이고 정치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기보다는 학생들의 '트렌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과 참여를 유인함
- 기존에 시행된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보완·개편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변경

3) 평화·통일 컨퍼런스 개최

- 대학 내에서 평화·통일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당면한 남북한의 문제의식을 공유 및 사안별 해결방안 논의함, 컨퍼런스와 함께 평화·통일 관련 콘텐츠, 현장체험, 참여 프로그램 전시도 병행함

- 컨퍼런스는 학생을 위주로 구성하되, 지역사회, 전문가, 저명인사 등도 초청하여 각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평화·통일 청년 전문가의 양성도 이룰 수 있음

다. 평화·통일 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 교원 대상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추구함. 자체적으로 평화·통일 교육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수법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함.
- 우수 콘텐츠와 사례는 발표·전파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 교원연구회를 운영하고 정기연수, 원격연수, 체험연수 등을 통해 현실에 밀착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함.
- 한반도 정세와 평화통일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한 특별반 운영함. 북·중 접경지역 및 남북접경지역 현장 체험 및 체험 연수 보고회 운영함. 핵심교원 양성,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등 현장지원단 운영
- 교원을 대상으로 DMZ·관문점·하나원 등 현장방문 프로그램 구성, 이론과 현장 경험을 제공함

라. 평화·통일 교재 및 콘텐츠 개발

1) 강의·학습 콘텐츠

- 강의·학습 자료 개발, 우수자료 보급, 콘텐츠 관리 등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반을 마련함
- 우수 강의·학습 콘텐츠 공모전 및 참여자 나눔 워크숍 개최, 콘텐츠 관리위원회 운영 등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발굴·보급
- 교원 및 예비교원,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함. 대학 내 콘텐츠 관리위원회(교원, 연구자) 운영

2) 출판물

- 교양교과 기본교재 개발, 기본교재는 개론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최근의 남북관계 현황을 반영하며,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 제시해야 함.
- 다양한 소재와 세련된 디자인의 자료를 개발, 평화·통일교육 도서의 대중화를 시도함
- 참고로 통일부 발간 출판물로 '보니하니 톡톡 통일 퀴즈북', '명사특강 평화의 길, 통일의 꿈', '관문점을 소개합니다' '뮤지컬과 함께하는 통일의 꿈', '평화교육 참고도서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감성토크 굿피스', '평화인문 시리즈 손 안의

통일(5종)',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한반도의 길' 등이 있음

- 전문출판사와 협업하여 판형·디자인 등 개선 노력이 필요

3) 멀티미디어 자료

-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함. 평화·통일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문학·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메시지 전달
- 다양한 형식의 영상 자료 제작·활용함, 학교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 오프라인 채널 등에 영상자료 활용하고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등에 영상자료 제공
- 동영상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클립영상, 웹 콘텐츠 등 형식을 다양화하고 보급 채널을 확대하여 콘텐츠 확산 및 활용도 제고함.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함.

VI. 결론

1. 통일교육지원법(1999년) 제정과 남북정상회의(2000년)이후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통일교육에 관한 정책적 지원도 과거에 비해 체계화되고 있음.

- 남북 관계의 부침과 국제정세의 불안은 상존하고 있으나,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곧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통일부의 통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019~2021),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 대학생을 위한 강좌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함. 이를 통해 대학교양 수준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함.

2. 통일교육선도대학 프로그램의 취지는 대학내 통일교육의 전면적 확산이라기 보다는 모범적 통일교육을 주변지역이나 대학 등으로 확산시키고 우수한 교육모델을 개발·보급하자는 것에 두어져 있음.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서울국립대), 충남대학교(지방국립대), 숭실대학교(서울사립대-재진입), 경남대학교(지방사립대) 그리고 신규진입한 강원대학교(지방국립대)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음. 의미 있는 사업들이 다수 발견됨.

- 대학이 통일교육을 행하는 방식은 학과중심형, 교양선택형, 연구/선발형, 사회교육형 등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서울대학교는 통일평화 연구역량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충남대학교는 통일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통일교육모델 구축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음. 특히 학과간 융복합교육을 통한 창의적 통일교육 전략이 주목됨.
- 필수교육형 중심의 통일교육을 시작했던 숭실대학교는 학과중심형, 연구중심형, 선택교육형으로 통일교육을 확장하고, 이들 교육과정간 균형적 보완을 추구하고 있음. 비 통일교육선도대학 학생대상 접경지역 및 통합 사례지역(러시아) 탐방프로그램, 통일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주목할 수 있음.
- 경남대학교는 비교과 과정의 통일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주목을 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여타 사업과의 연속성과 발전성을 추구함으로써 심화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견학과 탐방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강원대학교는 로컬리티-네트워크형 통일교육 선도대학 운영 사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연계성(지역연계 오픈캠퍼스)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임.

3.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이하 ‘강좌 지원사업’)은 통일부 주최로 2016년 2학기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 2020년 2학기까지 꾸준히 진행 중임.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까지 총 61개 대학에서 190개 특강 또는 강좌를 개최함. 다만 사업 선정 대학교 결과를 확인하면 비슷한 학교와 교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강좌목록 참조), 또한 2020년 2학기부터는 통일교육원 측에서 참여 학교 외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어떤 교수에 의해 어떤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음.

- 통일의지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남북한 화해와 번영의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 통일·북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강함. 대학 교양과정 정보를 검토하여 10년간 대학에서 북한·통일관련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분석했음. 5개 대학(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의 교양과정을 10년간 분석하여 통일·북한, 한국근현대사, 국제관계에 관한 기초수준의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살폈음. 대학 교양과정에 개설된 북한, 통일관련 과목수는 대단히 빈약한 수준으로 판단됨.

4. 통일교육의 해외사례로 독일의 경험을 선정하였음.

- 통일이전 서독은 자유주의와 사회국가의 전통 그리고 연방주의와 조합주의라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음. 서독의 국가이념과 국가체계들은 서독의 교육이념 및 교육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서독이 연방국가를 채택한 것은 국가권력의 중앙집중이 나찌의 전체주의를 낳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을 동일한 법체계 속에 포함시키기 위한 장기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이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기본법(헌법)이 아무런 변동 없이 작동할 수 있었음.
- 서독의 교육체계와 교육이념들은 60년대와 70년대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교육개혁의 결과임. 패전 후 새로 정부가 수립된 1949년부터 1963년까지 동서독은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음.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민주주의보다 반공주의를 앞세우게 만들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었음. 그러나 1963년부터 시작되어 1969년에 열매를 맺은 서독의 동방정책(빌리 브라튼)은 동서독 사이의 적대적 공존관계 즉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1민족 2

국가의 평화공존체제를 만들어냈음. 유럽의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서독은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원래의 교육이념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음. 동독과 서독 사이의 냉전체제(독일의 분단체제)는 1949 - 1963(1969)까지 15년내지 20년간 일시적으로만 유지되었음. 이러한 분단체제 극복은 서독의 국가이념, 즉 민주주의이념에 기초한 것임.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임.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여기에 있음.

- 연방국가의 성격은 교육체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문화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과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해 온 독일의 역사적 전통에서 연유하는 것임. 교육체제를 지탱하는 기구들은 문교장관협의회, 교육연구지원에 관한 연방 & 주 협력위원회, 교육자문위원회, 학술자문위원회, 대학총장회의가 있음.
- 학교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자기교육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정치교육원칙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립한 ‘보이텔스바하(Beutelsbach)’ 합의에 따라 국가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임. 서독 정치교육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합의임.
- 별도의 통일교육이 있었다기 보다는 분단체제 또는 적대적 관계가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불인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반민주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통일교육이었음. 따라서 동독의 사상과 이념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 동독국가의 체계와 제도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 동독인들의 현실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일교육이었음.
- 동서독의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한 정치교육, 그리고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정치교육은 다름 아님 민주주의교육이었음. 통일교육은 민주주의교육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 함. 이렇게 될 경우 통일교육은 ‘북한 제대로 알기’를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기’, 현대역사 알기로 이어져야 할 것임.

5. 대학의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제안함.

평화와 통일은 과정이며, 진정한 통일은 남북 공동체 주민들의 내면적 통합이 수 행되어야 함. 통일은 외부적 독립적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부에서 추동하는 것이며, 과정으로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일교육의 전제로 함.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함.

가. 평화·통일 교양교과 수업 운영

- 1) 교양교과 수업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 2)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평화·통일 수업
- 3) 뉴미디어를 통한 창의적 수업

나. 토론 및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개발

- 1) 학생 체험 중심 통일동아리 운영
- 2) 대학생 자율적 통일액티비티 지원
- 3) 평화·통일 컨퍼런스 개최

다. 평화·통일 교육 전문 교·강사 양성

라. 평화·통일 교재 및 콘텐츠 개발

〈 참고 문헌 〉

■ 단행본

- 김학재 외,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교육원,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통일교육원, 2020.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기본계획 (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 통일교육원, 2019.
마너드, H.C.지음, 서정복 옮김, 『프랑스혁명과 교육개혁』, 삼지원, 1996

■ 연구논문

- 한승대, “정부지원 대학통일교육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8.

■ 보고서

- 강원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연차보고서, 2020.
경남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 2020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 2020.
숭실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 2020.
충남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 4차년도 연차보고서, 2020.

■ 웹사이트 및 기타

-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가천대학교; <http://www.gachon.ac.kr/>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서강대학교; <http://www.sogang.ac.kr/>
충북대학교; <http://www.chungbuk.ac.kr/>
한국체육대학교; <http://www.knsu.ac.kr/>

(판권지)

평화·통일을 위한 대학교육 개편에 관한 연구

제안단체 : 서울특별시의회 연구단체 민주평화국민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입법담당관)

연구기관 :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김 진 업

연 락 처 : 02-2610-4106

관리번호 : 의연단20-15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음)